

황도연(黃度淵)의 의학과 그의 또 다른 이름 황도순(黃道淳)

¹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 ²인제대학교 인문의학연구소
오재근 ^{1, 2}*

Hwang Doyeon's Medical Achievements and His Other Name, Hwang Dosun

Oh Chaekun ^{1, 2}*

¹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jeon University

²Institute of Medical Humanities, Inje University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make a clarification that Hwang Doyeon(黃度淵) was a official doctor(醫官) who even served as royal doctor(御醫), rather than merely a general doctor who worked in the private sector. The article also attempts to give a new perspective on the medical history about the late period of Joseon(朝鮮) Dynasty.

Methods : In researching Hwang Doyeon's master work, *the Gains and Losses of Medical Orthodoxy*(醫宗損益), the article looks at his clinical medicines. Analyzing the historical records, the article makes an assumption that Hwang Doyeon and Hwang Dosoon(黃道淳), who was selected as an officer to discuss medicine with other medical officers(議藥同參), are the identical person. On this assumption, the article tries to reinterpret the medicine during the later Joseon Dynasty period.

Result & Conclusion : The records, including the royal medical treatment records of *the Gains and Losses of Medical Orthodoxy*,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承政院日記), *the genealogy of Changwon Hwangs*(昌原黃氏世譜), academic paper and government documents released posthumously, demonstrated that Hwang Doyeon and Hwang Dosoon are the same person. If so, we can have new historical interpretation about medical history of late Joseon Dynasty. First, during the late of Joseon Dynasty, there was an official and active medical knowledge interaction between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Second, the Joseon's medicine has been established its own medical system based on *the Treasured Mirror of Eastern Medicine*(東醫寶鑑), trying to cope with cholera and other contemporary epidemics without relying on Chinese warm disease(溫病) medicine. Third, *the Compilation of Formulas and Medicinals*(方藥合編), is regarded not only as a must-read medical reading for medical doctors, also playing an important role on popularization of Korean medical knowledge.

Key Words : Hwang Doyeon, Hwang Dosun, *the Gains and Losses of Medical Orthodoxy*, *the Compilation of Formulas and Medicinals*, traditional Korean Medicine.

1. 시작하는 글

근대 시기 한국 전통 의학의 흐름을 추적하다 보면 『방약합편(方藥合編)』(1885)이라는 소책자를 마주하게 된다.¹⁾ 이 책은 1885년 처음 간행된 이래 지금까지 50여 차례 이상 간행된 한의학 서적계의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로 이계마(李濟馬), 이규준(李圭峻) 등과 함께 실제 저자 황도연(黃道淵, 1808-1884)을 조선 말기 대표 의가로 손꼽히게 한 이유이기도 했다.²⁾ 『방약합편』과 관련해서는 저자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의학을 펼쳤는지, 어떻게 편찬됐고 또 유통됐는지 등에 대한 다양한 의문이 떠오른다. 황도연이 세상을 뜬지 140여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적이나 의학 사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잘 알려져 있지 않다.

* Corresponding Author : Oh Chaekun,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jeon Univ., 65 Daehak-ro, Daejeon-City, 34520, S. KOREA
Tel : +82-42-280-2611
E-mail : dhworms@gmail.com
Received(14 July 2017), Revised(10 August 2017),
Accepted(17 August 2017)

* 이 원고는 2017년 3월 25일 전북대에서 개최된 한일과학사학회 발표 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학회 당일 서울대 문증양, 임종태 교수로부터 역사적 의미 분석과 관련된 중요한 지적을 받았다. 보명한의원 이진철 원장으로부터 받은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 저자의 가설이 성립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전북대 신동원 교수, 전종욱, 이기복 박사에게서 역사적 의미 분석, 한남대 백승호 교수에게서 시문 풀이, 보광한의원 최순화 원장으로부터 『의종손익』 및 『방약합편』 판본과 관련된 조언을 받았다. 논문 작성에 도움을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꼼꼼히 원고를 살펴준 한의학연구원 김상현 박사 및 익명의 심사위원에게도 감사드린다.

- 1) 현재까지 『의종손익』의 목판본은 두 가지가 확인됐다. 첫 번째는 김신근이 수집해 韓國科學技術史資料大系 25-26권에 수록해둔 판본이며, 두 번째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판본이다(한고초8-12).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은 韓國科學技術史資料大系 판본과 달리 12권 「소아」의 끝 부분에 발문에 해당하는 시문, 12권 「소아」 「두진」 「두창예방」 조문의 한 문단 등이 누락되어 있다. 三木榮은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同治戊辰刊本 『의종손익』 중에 실린 黃道淵像을 자신의 저서 『朝鮮醫學史及疾病史』 중에 수록해두었으나(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大阪, 自家出版, 1962, p.282) 필자가 입수한 동일 간본 중에서는 해당 그림을 확인하지 못했다.
- 2) 최남선, 朝鮮歷史講話 (51), 동아일보, 1930. 3. 15; 김남일, 근현대 한의학 인물 실록, 서울, 들녘, 2011, p.285.

한의학계를 중심으로 『방약합편』에 수록된 방제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분석되어 있고, 그의 또 다른 의서 『부방편람(附方便覽)』(1855), 『의종손익(醫宗損益)』(1868) 등에 대해서도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어 있지만, 의가 황도연의 삶이나 그의 의학이 지닌 역사적 의미 등은 거의 밝혀져 있지 않다.³⁾

황도연 관련 자료를 추적하던 중 생몰년, 이름, 간행처 등과 관련된 자료를 소개하는 황연규의 연구 성과를 입수했다. 그는 세간에서 활용되고 있는 ‘황도연(黃道淵)’이라는 명칭 표기는 ‘황도연(黃道淵)’의 오기이며, 의관 ‘황도순(黃道淳)’과 황도연은 동일 인물일 수 없고, 황도연이 개설한 약국으로 알려져 있는 찬화당(贊化堂)은 의업을 수행하던 곳이 아니라 경판본 서적을 출판하던 간행처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⁴⁾ 신선한 주장이라고 여기고 있다가 『의종손익』을 검토한 뒤, 새로운 의문에 사로잡혔다. 도대체 저자 황도연은 어떤 인물이었기에 『동의보감』, 『제중신편』, 『경약전서』를 비롯한 중요 의서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정리해낼 수 있었고, 당대에 유통되던 의학 정보들을 아우를 수 있었으며, 나아가 콜레라 등과 같은 치명적인 돌림병에까지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인가. 황도연은 생전에 『방약합편』의 모본

- 3) 『방약합편』에 수록된 방제를 분석한 연구는 일일이 소개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그 외 『방약합편』의 내용 및 특징을 개괄한 것으로는 김형태, 윤창열의 선행 연구가 있고(김형태, 윤창열, 方藥合編에 대한 연구,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91. 5. pp.151-199), 판본을 분석한 것으로는 오병진, 박경남, 맹용재의 연구가 있으며(오병진, 박경남, 맹용재, 《方藥合編》中 〈活套鍼線〉에 관한 板本學의 考察, 한국사학회지, 2007. 20(2), pp.169-236), 약성가를 분석한 것으로는 오재근, 윤창열의 연구가 있다(오재근, 윤창열, 조선 의서 중의 藥性歌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1. 24(3), pp.62-63). 이외에 『부방편람』과 『의종손익』에 대해서는 각각 오재근, 김용진과 이진철의 선행 연구가 있다(오재근, 김용진, 조선 후기 『본초강목』의 전래와 그 활용, 의사학, 2011. 20(1), pp.29-51; 이진철, 『醫宗損益』을 통해본 황도연의 의학사상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한편 황도연 의학 사상에 대한 의학사적 의미는 김적, 홍원식이 선구적으로 밝혀두었다(김적, 홍원식, 開化期 韓國漢醫學의 實情과 黃道淵의 醫學思想, 大韓漢醫學會誌, 1980. 16(1), pp.15-23).
- 4) 황연규, 《醫方活套》의 黃道淵선생에 대한 疑問들, 慶南韓醫學會誌, 2008. 35. pp.178-184.

(母本)인 『의방촬투(醫方活套)』(1869)를 비롯해 『부방편람』, 『의중손익』 등의 전문 의서를 저술했다. 조선 시대를 통틀어 허준(許浚) 외에 그보다 많은 저술을 남긴 의가는 찾아보기 힘들다.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민간의원(民間醫人)’이나 ‘유의(儒醫)’라고 추정되고도 있지만,⁵⁾ 별도의 의학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은 임상 의가가 방대한 분량의 전문 의서를 써냈으며 그 중 한 권이 100년이 넘도록 베스트셀러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의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문득 황도연이 중앙 정부에서 전문적으로 훈련 받은 의관(醫官)이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의중손익』, 『방약합편』 등을 새롭게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 논문은 민간의원으로 알려져 있던 황도연이 어의를 역임한 의관 황도순과 동일 인물이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확보 가능한 사료를 토대로 해당 가설을 검증한 뒤, 그 결과를 기반으로 조선 후기 의학의 주요 논점을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그의 의학 전모가 반영되어 있는 의서 『의중손익』을 분석하고 그 중에 『동의보감』, 『제중신편』으로 이어지는 조선 관찬(官撰) 의서의 전통이 계승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이어 황도연과 황도순이 다른 인물이라고 주장했던 황연규의 연구 성과를 되짚고,⁶⁾ 『의중손익』, 족보, 승정원일기, 황도연의 자작 시문(詩文) 등을 검토해가면서 ‘황도연(黃度淵)’과 ‘황도순(黃道淳)’이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음을 주장했다. 끝으로 이를 기반으로 조선 후기 관의학(官醫學)과 민간의학의 관계, 당대의 유행병인 콜레라 등을 둘러싼 의학적 논의, 대중 의서 『방약합편』이 지닌 의미 등에 대한 재검토를 시도했다.

황도연과 황도순의 관계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특정 가설을 내세우며 후속 논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성급한 역사 서술이라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를 모면하기 위해 선불리 두 의가가 동일 인물임을 단정하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저자의 주

장을 뒷받침해주는 역사적 근거를 제시하고 동일 인물일 개연성이 높음을 추론해내고자 한다. 황도연의 의학은 당대 의학의 중심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후대 의학의 전개에도 깊은 영향을 끼쳤다. 미키사카에(三木榮)는 조선 의서에 대해 언급하면 그 자리에서 『방약합편』을 꺼내 보여주었을 정도였으며,⁷⁾ 김두중 역시 『방약합편』은 조선 의가들이 상비하는 의서였다고 증언하고 있다.⁸⁾ 따라서 황도연의 의학이 어떠한지 뿐 아니라 그의 행적을 밝혀보는 것은 조선 후기 그리고 근대 시기 의학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2. 황도연의 의학과 임상의학)

황도연의 의학은 그가 직간접적으로 편찬에 관여했던 의서 『부방편람』, 『의중손익』, 『의방촬투』 그리고 『방약합편』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 중 『부방편람』은 『동의보감』 체례에 의거해 『본초강목』 부방(附方)을 임상 활용에 편리하도록 정리한 저작이고,¹⁰⁾ 『의방촬투』는 치료에 미숙한 초학자들이 입문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중손익』의 요점을 뽑아 만든 방서(方書)이다.¹¹⁾ 『방약합편』은 『의방촬투』의

5)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大阪. 自家出版. 1962. p.259; 김남일. 한의학에 미친 조선의 지식인들. 서울. 들녘. 2011. p.10, 238.

6) 황연규. 《醫方活套》의 黃度淵先生에 대한 疑問들. 慶南韓醫會誌. 2008. 35. pp.178-184.

7)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大阪. 自家出版. 1962. p.2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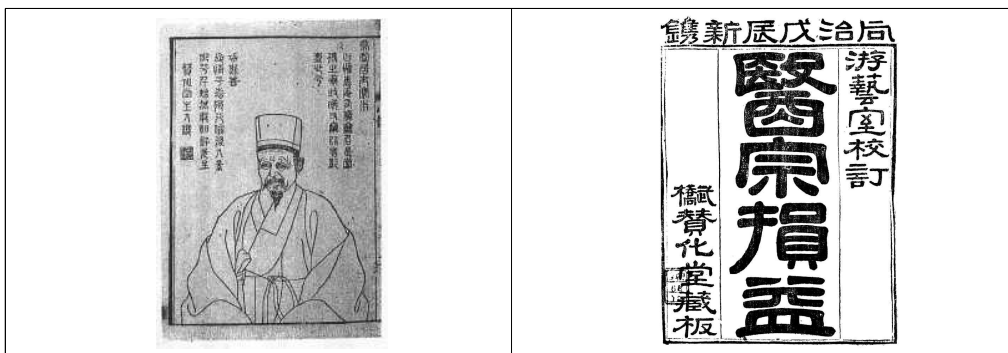
8) 김두중. 한국의학사. 서울. 탐구당. 1981. p.458.

9) 초고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의중손익』에 대한 이진철의 연구가 발표됐다든 소식을 전해 들었다. 저자에게 연락해 논문을 입수하고 검토한 뒤 『의중손익』의 분석 방법 및 그 결과가 유사함을 확인했다. 표절 혐의를 피하기 위해 중복되는 부분은 최대한 삭제했으나, 논지 전개를 위해 필요한 부분과 결과에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그대로 남겨두었다. 예를 들어 2. 황도연의 의학과 임상의학에서는 이진철의 선행 연구에 비해 장개빈 의서와의 관련성, 콜레라 치료 방법, 당대 경험방 의서들에 대한 분석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했으며, 증 [摺] 항목을 이범방약의 틀로 분석한 점, 표 1. 『의중손익』의 인용 의서 및 인용 횟수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두 연구의 차이는 3. ‘황도연’의 또 다른 이름 ‘황도순’ 4. 의관 황도연의 의학과 조선 후기 의학의 재해석의 항목에서 보다 분명하게 나타난다.

10) 오재근, 김용진. 조선 후기 『본초강목』의 전래와 그 활용. 의사학. 2011. 20(1). pp.41-46.

11) 黃度淵. 醫方活套. 金信根 編. 韓國科學技術史資料大系 27 권. 서울. 여강출판사. 1988. pp.3-6.

Fig 1. The image of Hwang Doyeon (left) and the cover of *the Gains and Losses of Medical Orthodoxy* (right) 황도연 상(왼쪽)과 『의종손익』 표지(오른쪽)



* 황도연 상과 『의종손익』 표지는 각각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大阪. 自家出版. 1962. p.282,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의종손익』(청구기호 한古朝68-12)에서 가져왔다.

토대 위에 약물 관련 정보를 보입한 뒤 편제를 새롭게 한 저술에 지나지 않으므로,¹²⁾ 황도연 의학의 전모는 종합 의서 『의종손익』 중에 담겨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 『동의보감』 체례에 의거한 의학의 정리와 시의에 따른 손익(損益)

황도연은 『의종손익』 「자서(自敘)」 중에서 처음 의약(醫藥)이 만들어질 때는 당시의 문체에 적절히 대처했겠지만, 시간이 지나오면서 잘못이 발생하거나 없어지게 되었으니 쫓아갈 것과 변경할 것을 변통해 그 적절한 바를 구해야 한다며 편찬 의도를 분명히 밝혔다.¹³⁾ 그렇다면 그가 번잡한 것은 삭제하고 빠진 것은 보충하면서(刪繁補闕, 損益) 계승하고자 했던 의학의 종지(醫宗)는 무엇이었을까?

“황제, 기백 이래로 문왕, 주공, 공자의 삼대성인(三代聖人, 三代聖王)의 책은 진나라를 만나 모두 없어지게 되었고 홀로 보전하게 된 것은 오직 의약 뿐이었다... 뒷

시대 사람들은 성인이 만든 방도(聖人制作之方)에 근원하지 않고 마주하는 질병이나 품부 받은 성질(性)에만 고착되어 때와 쓰임이 적절치 않게 되었다... 옛 사람의 오랜 자취를 뒤따르고 옛 책 중의 기성 방도(成方)에 구애되는 것은 학자들의 공통된 폐해이며, 이것은 삼대 성왕이 후예들에게 모범을 보인 까닭을 알지 못하고 시의(時宜)에 적절치 않게 하는 것이다.”¹⁴⁾

황도연은 성인이 만들어 온전히 보전되던 의학의 이치(醫道)를 계승하고자 했으며,¹⁵⁾ 그것을 시의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 더하고 덜어낸 결과물이 바로 『의종손익』이었다. 「범례」 중에서 그는 『동의보감』이 조선 의가(東醫)들에게 익숙할 뿐 아니라 구분 항목(名目) 역시 상세하므로 임상 진료의 지남(指南)으로 삼겠다라고 언설한 뒤, 세부 항목 편찬 방식으

12) 黃度淵. 方藥合編. 金信根 編. 韓國科學技術史資料大系 27 권. 서울. 여강출판사. 1988. p.203.

13) 黃度淵. 醫宗損益. 金信根 編. 韓國科學技術史資料大系 25 권. 서울. 여강출판사. 1988. pp.6-7.

14) 黃度淵. 醫宗損益. 金信根 編. 韓國科學技術史資料大系 25 권. 서울. 여강출판사. 1988. pp.5-9. “軒岐以來三代聖人之書遭秦, 而獨傳者唯醫藥是已... 後世不原聖人制作之方, 膠固於所遇之病與所稟之性, 不宜於時, 不適於用... 夫躡古人之陳迹, 泥古書之成方, 學者之通患, 是不知夫三代聖王之所以垂範於後裔, 而不適時宜者也.”

15) 의학 분야의 道統論에 대해서는 신동원의 연구 참조(신동원. 동의보감과 동아시아 의학사. 파주. 들녘. 2015. pp.203-220).

로 『제중신편』의 맥증치(脈症治)를 강조했다.¹⁶⁾ 의학의 이치를 구현해내기 위한 설명 도구로 조선의 관찬 의서 『동의보감』과 『제중신편』을 선택했던 것이다. 『동의보감』의 구성 체계를 활용한 의학 지식의 정리는 앞선 저작 『부방편람』에서 시도된 바 있다. 그로부터 10여년 뒤 『의중손익』을 편찬하면서 황도연은 다시 한번 몸과 몸을 구성하는 요소인 신형(身形)과 정기신(精氣神)을 의서 전면에 내세웠다.¹⁷⁾ 질병 발생 원인으로 지목되던 육기(六氣), 풍·한·서·습·조·화를 전면에 내세우던 『제중신편』이 제기했던 질병 중심의 의학 체계로부터 『동의보감』이 강조하던 몸 중심의 의학 체계로 회귀하는 순간이었다.¹⁸⁾ 그러나, 『제중신편』 체제와 동일하게 침구 관련 내용은 누락시켰으며, 약물 관련 내용은 부록에 해당하는 「부여(附餘)」 중에서 총론인 강령(綱領)과 각론인 약성가(藥性歌), 두 부분으로 구성해냈다. 아울러 노인 질환 관련 의학 지식을 증보하고, 쓸모 있는 속방을 가려 실으며, 내의원 진상 약재 정보를 기록하는 등 「제중신편범례(濟衆新編凡例)」에서 제시했던 의서 편찬 원칙을 그대로 수용했다.¹⁹⁾ 의서 편찬의 큰 틀과 중심 내용은 『동의보감』을 따랐지만, 세부적인 내용 구성에 있어서는 고방(古方)의 번잡함을 제거하고 그 요점만을 취하고자 했던 『제중신편』의 문제의식을²⁰⁾ 계승했던 것이다. 아래 표 1에서는 『의중손익』 「인용제서」 105개의 서

목 중 실제 개별 조문 중에서 인용 의서로 표기된 73개 의서의 인용 횟수 일부를 정리하고 있다. 그중 『동의보감』은 인용 의서가 표기된 전체 2,891개 조문 중에서 1,900회 가량 인용되며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제중신편』이 뒤를 따르고 있었다. 이는 당대에 확산되어 있던 조선 관찬 의서 『동의보감』과 『제중신편』의 영향력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의중손익』이 조선 관찬 의서의 흐름을 계승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황도연이 『동의보감』과 『제중신편』에 이어 주목했던 의서는 장개빈(張介賓, 1563-1642)의 『경약전서(景岳全書)』였다. 발문에 해당하는 『의중손익』 12권 끝부분의 시문 중에서 황도연은 자신의 삶이 범문정공(范文正公)이 인정할만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자신의 신세가 어릴적 품었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의학에 의탁했던 장개빈과 같아지기를 바란다(21)고 밝히며²¹⁾ 삶의 본보기(role model)의 한 사람으로서 명대 의가 장개빈을 꼽았다. 『의중손익』에서 장개빈 의서의 활용은 증치(症治)나 방제(方劑) 방면에서 두드러진다. 병증에 대한 설명과 구체적인 치료 방법을 언급하는 증치 중의 의서 인용 횟수는 『경약전서』 40회, 『동의보감』 31회, 『제중신편』 14회이나 전체 의서 인용 횟수 대비 증치 부분의 인용 횟수 비율은 『경약전서』 20.8(40/192)%, 『동의보감』 1.6(31/1904)%, 『제중신편』 3.8(14/364)%로 나머지 두 의서를 압도한다. 뿐만 아니라 이음전, 거원전, 난간전, 좌귀환, 우귀환, 대영전, 하인음 등 장개빈의 대표 방제들을 전제하며 온보학과(溫補學派)를 대표하는 의가인 장개빈의 의학 이론 그리고 방제에 대한 편증을 잘 보여준다.²²⁾ 반면 청대의 관찬 의서

16) 黃度淵. 醫宗損益. 金信根 撰. 韓國科學技術史資料大系 25권. 서울. 여강출판사. 1988. pp.17-18.
 17) 황도연은 『제중신편』 중에 「부인」문과 같이 배치했던 「포(胞)」문 역시 『동의보감』 편제와 마찬가지로 「오장」, 「육부」의 하단으로 옮겨왔다.
 18) 『제중신편』의 의서 편찬 체계에 대해서는 지창영, 박석준의 연구 참조(지창영. 제중신편과 동의보감의 비교 연구. 한국의학학회지. 2008. 21(2). p.136; 박석준. 동아시아 전근대 의학과 동의보감의 역사적 성격.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pp.141-143). 『동의보감』의 몸 중심 의학 체계에 대해서는 신동원의 연구 참조(신동원. 동의보감과 동아시아 의학사. 과주. 들녘. 2015. p.234, pp.247-248).
 19) 黃度淵. 醫宗損益. 金信根 撰. 韓國科學技術史資料大系 25권. 서울. 여강출판사. 1988. pp.17-20; 康命吉. 濟衆新編. 金信根 撰. 韓國科學技術史資料大系 18권. 서울. 여강출판사. 1988. pp.7-8.
 20) 康命吉. 濟衆新編. 金信根 撰. 韓國科學技術史資料大系 18권. 서울. 여강출판사. 1988. p.7.

21) 黃度淵. 醫宗損益. 金信根 撰. 韓國科學技術史資料大系 26권. 서울. 여강출판사. 1988. p.374. 張介賓의 행적에 대해서는 『景岳全書』 『景岳全書綱略』 참조(張介賓. 景岳全書. 李志庸 主編. 張景岳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817).
 22) 하기태, 김준기, 최달영은 『의중손익』이 『景岳全書』 「新方八陣」 189개 방제 중 약 60%이 방제를 인용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어 후대에 편찬된 『방약합편』은 『의중손익』을 통해 장개빈의 방제를 재인용하고 있다(22)고 서술했다(하기태, 김준기, 최달영. 『景岳全書』가 朝鮮後期 韓國醫學에 미친 影響에 대한 研究. 대한한의학회지. 1999. 20(2). pp.16-17). 온보학과 의학에 대해서는 廖有群, 傅

Table 1. Quotation books and the number of quotes in *the Gains and Losses of Medical Orthodoxy*. 『의종손익』의 인용 의서 및 인용 횟수

표기	의서명	편찬 년대	횟수	표기	의서명	편찬 년대	횟수	표기	의서명	편찬 년대	횟수
寶鑑	『東醫寶鑑』	朝鮮	1,904	俗方	-	-	19	及幼	『及幼方』	朝鮮	10
濟衆	『濟衆新編』	朝鮮	364	時珍	?	-	16	麻通	『麻疹會通』	朝鮮	8
景岳	『景岳全書』	明	192	脈訣	?	-	15	李景 華方	『廣濟秘笈』	朝鮮	8
增	-	-	55	保元	『壽世保元』	明	14	濟陰	『濟陰綱目』	清/ 康熙	8
本草	?	-	29	麻纂	『麻疹纂要』	明	13	奇效	『奇效良方』	明	6
銅人	『銅人經』	宋	28	丹臺	『丹臺玉案』	明	11	纓雲	『纓雲齋方』	朝鮮	6
赤水	『赤水玄珠』	明	25	方考	『名醫方考』	明	11	醫統	『古今醫統』	明	6
入門	『醫學入門』	明	20	驗方	『驗方新編』	?	11	馮氏	『馮氏錦囊』	清/ 康熙	6

* 6회 이상 인용 의서로 표기된 의서 명칭만을 기재했다.

** 『의종손익』 초판과 재판 중 어느 한 판본에 기입되어 있지만 이를 인용 횟수 1회로 계상했다.

*** 의서명은 『의종손익』 「인용계서」에 의거했으며, 의서명이 겹치거나 분명치 않은 것은 ‘?’로 표기했고, 관련 정보가 없는 것은 ‘-’로 표기했다. 纓雲師選方도 纓雲의 표기로 간주했다.

인 『의종금감(醫宗金鑑)』, 『도서집성(圖書集成)』 그리고 주요 의서인 『의문법률(醫門法律)』, 『임증지남의안(臨証指南醫案)』, 『제음강목(濟陰綱目)』 등도 활용되고는 있지만 활용 비율은 저조한 편이다.

2) 자신을 비롯한 당대 조선 의가들의 의약 경험 집결

『의종손익』 중의 55개 ‘증(增)’ 항목은 황도연의 의학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잘 보여준다.²³⁾ ‘증(增)’은 과거 의가들과 구별된 자신 만의 의견임을 표지한 것으로 「범례」 중에서 황도연은 ‘증’ 항목을 통해 시의 적절한 의학 이론을 정립하고 치료 경험에 근거한 방제를 담아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²⁴⁾

별도 항목을 통해 편찬자 스스로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기술 방식은 강명길(康命吉, 1737-1800)이 『제증신편』 ‘신증(新增)’ 중에서 시도한 바 있다(지창영, 1998: 99-101).

55개 ‘증’ 항목의 내용을 이법방약(理法方藥)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면,²⁵⁾ 이론 3개, 변증·진단·치법 10개, 방제 31개, 약물 9개, 의안 7개로 실제적인 임상 의학 지식인 방제나 약물 그리고 치료 경험과 관련된 내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부록 1). 그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방제와 관련된 내용들이다. 대부분은 귀비탕, 육군자탕 등 기존의 방제 설명 끝 부분에 ‘증’ 항목을 부기하며 자신의 응용법을 추가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군령탕, 건리탕, 삼원음, 보양단, 길굴음, 보금탕, 윤금탕, 길계고 등은

芳, 郑金生의 연구 참조(廖育群, 傅芳, 郑金生. 中国科学技术史 医学卷. 北京. 科学出版社. 1998. pp.369-378).

23) 『의종손익』 ‘증(增)’ 항목에 대한 개별 분석은 이진철의 연구 참조(이진철. 『醫宗損益』을 통해본 황도연의 의학사상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pp.44-74).

24) 黃度淵. 醫宗損益. 金信根 편. 韓國科學技術史資料大系 25

권. 서울. 여강출판사. 1988. p.19.

25) 理法方藥에 대해서는 謝觀 및 王新华의 연구 참조(謝觀. 中国医学源流论. 福州. 福建科学技术出版社. 2003. p.121; 王新华 主编. 中医药高级丛书 中医基础理论 上. 北京. 人民卫生出版社. 2001. p.23).

별다른 설명이나 인용 의서 표기가 없이 기술되고 있어 황도연 자신이 구성해낸 방제와 운용법을 ‘증’ 항목을 빌어 설명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비위(脾胃) 기능이 허약해 음식 생각이 없으며 적취(積聚)로 막혀진 기운이 위로 치밀어 오르고 배가 찌르듯이 아픈 병증을 치료하는 건리탕의 경우, 소건중탕에 이중탕을 더한 기본 약물 구성 설명 이외에 12개의 가감 방법과 자신의 치험 사례에 이어 “치료하는 병증이 너무 다양해 모두 기재할 수 없으며 오직 병증에 따라 융통성 있게 활용할 뿐이다”라는 평가를 덧붙이며²⁶⁾ 자신이 애용하던 방제였음을 간접 시사했다. 두 번째로 주목을 끄는 것은 치료법 및 치료 방향과 관련된 내용이다. 황도연은 『의종손익』 1권 「총론」 첫머리에서 “세상 사람들이 앓고 있는 병, 열 중의 아홉이 허약해서 온 것인데, 의사들이 처방하는 약, 백 개 중에 하나도 보충하는 것이 없다”²⁷⁾는 『의종필독(醫宗必讀)』의 문장을 인용하며 어떤 관점으로 병증을 이해하고 치료하고 있는지 제시한 바 있다.

“ [증] 허하면 보하고 실하면 사하는 것은 의사의 기본 치료법이다... 옛 사람들이 치료하는 것은 대개 허를 위주로 했는데 지금 사람은 주로 발산을 시키려하니 이상하다.”²⁸⁾

“정기가 허약하면 보충하고 사기가 충실하면 덜어낸다(虛者實之, 滿者泄之)”는 것은 동한 대의 의학 경전 『황제내경』에서 제기된 이래 변치 않고 유지되어 온 기본적인 치료 원칙이다.²⁹⁾ 다만 동아시아 의

학계는 이 두 가지 치료 원칙, 정기의 허약함을 보충할 것인지 아니면 사기의 충실함을 공격할 것인지를 두고 누대에 걸친 논변을 거듭해왔다.³⁰⁾ 위의 인용 문장에서 드러나듯이 황도연은 독성이 강한 약물로 발산, 청열, 사하 등을 시켜 급하게 치료하는 것보다³¹⁾ 허약한 원기(元氣)를 따뜻하게 보충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그것이 시의에 적절한 치료 방법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이 같은 관점은 온보학과 의 견해에 경도된 것으로 앞서 언급한 장개빈의 의학 이론 및 방제에 대한 편중 뿐 아니라 중국 온보학과 의가 조헌가(趙獻可)가 제창한 상한(傷寒)으로 유발된 음허발열(陰虛發熱) 증상을 육미지황원으로 치료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깊은 찬탄을 보내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된다.³²⁾ 세 번째, 황도연은 증 항목을 통해 당대에 유행하던 질병인 콜레라(cholera)에 대한 대처법을 소개했다.

“도광(道光) 신사년에 한번 장마가 진 뒤 4달 동안 이어졌다. 입추부터 갑자기 병이 크게 돌아 설사를 한두 차례 하고 죽는 경우가 이어지다가 한로에 이르러서 멎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알지 못해 괴질(怪疾)이라고 부르거나 윤증(輪症)이라고 불렀다. 그 후 몹시 덥다가 오랫동안 장마가 이어지면 그 끝에 이런 병증이 많이 생겼다. 단지 설사만 하기도 하고, 겸하여 구토하거나, 힘줄이 뒤뜰리기도 했다. 모두 습열(濕熱)이 원기를 손상시켜 그러한 것이었다... 그 이름을 서습곽란(暑濕霍亂)이라고 했다.”³³⁾

26) 黃度淵. 醫宗損益. 金信根 編. 韓國科學技術史資料大系 25 권. 서울. 여강출판사. 1988. pp.245-246.

27) 黃度淵. 醫宗損益. 金信根 編. 韓國科學技術史資料大系 25 권. 서울. 여강출판사. 1988. p.28. “世人之病, 十有九虛, 醫師之藥, 百無一補.”

28) 黃度淵. 醫宗損益. 金信根 編. 韓國科學技術史資料大系 25 권. 서울. 여강출판사. 1988. p.371. “人參救毒散... 增. 虛補實瀉, 醫之大經... 古人治法, 概以爲虛, 今人用藥, 專務發散, 抑亦異哉.”

29) 郭霽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語譯.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81. p.161; 廖育群. 醫者意也. 台北. 東大圖書股份有限公司. 2003. pp.41-42.

30) 范行准. 中國醫學史略. 北京. 北京出版社. 2016. pp.227-231; 賈得道. 中國醫學史略. 山西省中醫研究所. 1978. pp.161-162, 214-215.

31) 黃度淵. 醫宗損益. 金信根 編. 韓國科學技術史資料大系 25 권. 서울. 여강출판사. 1988. p.30.

32) 黃度淵. 醫宗損益. 金信根 編. 韓國科學技術史資料大系 25 권. 서울. 여강출판사. 1988. p.396.

33) 黃度淵. 醫宗損益. 金信根 編. 韓國科學技術史資料大系 26 권. 서울. 여강출판사. 1988. pp.79-80. “道光辛巳一霖四朔, 自立秋後暴病大熾, 泄瀉一二次死者相繼. 迨寒露而始熄. 人無知其名者, 或稱怪疾, 或稱輪症. 其後極暑久霖之餘, 率多此症, 有單泄者, 或兼嘔吐轉筋者, 此皆濕熱損傷元氣之

위의 인용문에서는 황도연은 당대에 유행했던 괴질의 경과를 소개하고, 병증의 양상, 발병 원인을 분석한 뒤, 해당 병증을 서습곽관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신사년(辛巳年, 1821) 괴질(怪疾)’로 불리는 서습곽관은 유행병의 발병 시기 및 경과, 병증의 표현 양상, 치명도 등을 고려할 때 당대 동아시아를 휩쓸던 그리고 조선 시대 가장 끔찍했던 돌림병의 하나로 손꼽히는 콜레라로 파악된다.³⁴⁾ 이어지는 문장에서는 협체(挾滯), 기허(氣虛), 번갈(煩渴)로 병증을 구분하고, 체한 것을 제거한다(消滯)·습기를 쏘아낸다(瀉濕)·열기를 식힌다(清暑)·따뜻하게 보한다(溫補)는 치료 원칙과 함께 회생산, 백출산, 부자이중탕 등을 치료 방제로서 제시했다.³⁵⁾ 『의종손익』의 다른 부분에서도 콜레라 치료에 가장 적합한 방제로 황련탕을 꼽거나,³⁶⁾ 콜레라에 걸린 30여세 부인을 목유회생산, 백출산, 부자이중탕, 그리고 생부자를 활용해 치료했던 치험 사례를 소개하는 등³⁷⁾ 당대에 새롭게 등장한 유행병에 대처하기 위해 골몰했음을 시사하고 있다.³⁸⁾

『의종손익』 「인용제서」는 황도연이 『동의보감』과 『제중신편』 외에 『의림촬요(醫林撮要)』, 『금유방(及幼方)』, 『산림경제(山林經濟)』, 『광제비급(廣濟秘笈)』, 『마진회통(麻疹會通)』³⁹⁾, 『영운재방(纓雲齋方)』 등 다양한 조선 의서들을 활용했음을 알리고 있다. 「인용제서」에 표기된 전체 의서 대비 조선 의서의 비율은 8.5%(9/105)로 그 이전에 편찬된 조선 의서

『제중신편』 9.5%(2/21), 『광제비급』 9.8%(8/81), 『마진회통』 9.5%(6/63) 등과 큰 차이는 없다.⁴⁰⁾ 다만, 본문에서는 『조운표방(趙運杓方)』, 『임응회방(任應會方)』, 『김엽방(金燁方)』, 『권장언방(權章彦方)』, 『강세범방(姜世範方)』,⁴¹⁾ 『연시방(燕市方)』 등 다양한 경험방 의서들을 소개하며 자신과 같은 시기를 살아가거나 조금 앞선 시기에 활동한 의가들의 성취를 집결시키고 있다.

먼저 『영운재방』의 저자로 추정되는 이명운(李命運, 1755-1830)은 서울에서 이름난 의원으로 활동하다가 의약동참으로 의관의 지위에 올랐지만,⁴²⁾ 순조의 세자이자 헌종의 아버지인 효명세자 이영(李暹), 익종(翼宗, 1809-1830)의 치료를 담당하다가 익종이 사망하자 그 책임을 물어 귀양 보내졌다가 사망했다.⁴³⁾ 『영운재방』이 전해지고 있지 않아 그의 의학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의종손익』 중에 부익지황환, 가미팔진탕 등 임신 관련 질환을 치료하는 방제와 맥진 관련 내용이 집중 인용되고 있어⁴⁴⁾ 부인과 질환의 치료나 맥진에 뛰어난 의가였을 것으로 보인다. 『조운표방』의 저자로 추정되는 조운표(趙運杓, 1805-?)는 『내침의선생안(內鍼醫先生案)』 중에 기재되어 있는 의관으로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1844년 관직에 제수되어 1862년까지 침의(鍼醫)로 활동했다. 주요 활동 시기가 순조 및 철종 무렵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황도연과 동시대에

致也... 其名之爲暑濕霍亂乎.”

34) 신동원. 호열자 조선을 습격하다. 서울. 역사비평사. 2004. pp.21-29, 116-118; 余新忠. 清代江南的瘟疫与社会. 北京. 北京师范大学出版社. 2014. pp.80-81.
35) 黃度淵. 醫宗損益. 金信根 撰. 韓國科學技術史資料大系 26 권. 서울. 여강출판사. 1988. pp.78-79.
36) 黃度淵. 醫宗損益. 金信根 撰. 韓國科學技術史資料大系 25 권. 서울. 여강출판사. 1988. p.262.
37) 黃度淵. 醫宗損益. 金信根 撰. 韓國科學技術史資料大系 26 권. 서울. 여강출판사. 1988. p.223.
38) 황도연의 콜레라 대처가 지니는 의학적 의미에 대해서는 아래 4. 의관 황도연의 의학과 조선 후기 의학의 재해석 중에서 별도 분석할 예정이다.
39) 『醫宗損益』 「引用諸書」 중에서 저자를 丁若鏞으로 표기하고 있어 『麻科會通』의 이명이거나 오기로 보인다.

40) 『濟衆新編』 「濟衆新編引用諸方」, 『廣濟秘笈』 「引據諸書」, 『麻科會通』 「抄撮諸家姓氏書目」에 의거해 분석했다.
41) 『강세범방』의 인용 문장은 韓國科學技術史資料大系 卷十二 「小兒」痘瘡預防 중에서 확인할 수 있다.
42) 黃度淵. 醫宗損益. 金信根 撰. 韓國科學技術史資料大系 25 권. 서울. 여강출판사. 1988. p.26; 『승정원일기』 정조 11(1787)년 9월 12일; 순조 13(1813)년 11월 30일. 승정원일기 [cited 2017 Jan 20]: Available from: URL: <http://sjw.history.go.kr/>. 이하 승정원일기 관련 내용은 동일한 웹사이트를 활용해 검색했다.
43) 『순조실록』 순조 30(1830)년 11월 26일. 조선왕조실록 [cited 2017 Jan 20]: Available from: URL: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44) 黃度淵. 醫宗損益. 金信根 撰. 韓國科學技術史資料大系 25 권. 서울. 여강출판사. 1988. p.117, 287; 黃度淵. 醫宗損益. 金信根 撰. 韓國科學技術史資料大系 26 권. 서울. 여강출판사. 1988. p.170, 255, 267.

중앙 무대에서 활약했던 것으로 보인다.⁴⁵⁾ 『임응회 방』의 저자로 추정되는 임응회(任應會)는 『임신진역 방(壬申疹疫方)』의 저자이자 운기법(運氣法)을 활용한 처치법으로 유명했던 유의(儒醫) 임서봉(任瑞鳳)의 아들로, 황도연 보다 조금 앞선 시기에 활동했다.⁴⁶⁾ 아버지와 함께 이인좌(李麟佐)의 난에 연루되어 남원에서 귀양살이를 한 탓인지, 『의방촬부』 「굴피전원」 중에서 황도연은 그를 남원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다.⁴⁷⁾ 김엽, 권장언, 강세범의 생애나 의학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

요컨대, 황도연은 『의중손의』를 편찬하며 『동의보감』의 목차를 큰 틀로 삼았고, 『제중신편』의 조목 구성과 편찬 방향을 세부적인 틀로 삼아 기존 전통 의학 지식을 재구성해냈다. 그리고, 장개빈을 비롯한 중국 은오학과 의가들이 제시한 새로운 이론과 당대의 유행병에 대한 대처법, 그리고 동시대를 살아간 조선 의가들의 경험방 등을 덧붙였다. 옛 뜻에 부합하고(合乎古), 시류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宜於時) 방편이었다.⁴⁸⁾

3. ‘황도연’의 또 다른 이름 ‘황도순’⁴⁹⁾

광무 10(1906)년에 출간된 『창원황씨세보(昌原黃氏世譜)』 병오신간보(丙午新刊譜) 11권의 기재에 따르면 황도연은 1808(戊辰)년 3월 28일에 출생해 1874(甲戌)년 8월 17일, 향년 7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자(字)는 치숙(釋叔?), 호는 혜암(惠庵)이었다. 음사(蔭仕)로 관직은 북부령(北部令)에 달했으며 저서로는 『부방편람』 등이 있다(그림 2).⁵⁰⁾

황도연의 사망 년도와 관련해서는 논란이 있다. 『창원황씨세보』 중에 “1808년 출생, 1874년 몰세(純廟戊辰三月二十八日生... 今上甲戌八月十七日卒)”와 함께 “향년 77세(享年七十七)”라는 표기가 병렬되고 있는데, 1874년에 사망했다면 향년 77세가 아닌 67세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미키사카에, 김두중, 노대환, 그리고 이진철을 비롯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황도연의 아들 황필수(黃泌秀, 1842-1914)가 기술한 「방약합편원인(方藥合編源因)」 중의 “아버지의 나이는 이미 77세였다”, “올해 8월 17일에 세상을 떠났다”, “장례를 치룬지 두 달 만에 눈물을 닦으며 일을 끝내” 등의 기술을 근거로 「원인」이 쓰여진 1884(甲申, 고종 21)년을 사망년도로 간주했다.⁵¹⁾ 반면, 황연규는 1906년, 1958년, 1999년 발간된 『창원황씨세보』의 표기를 토대로 1874(甲戌)년이 황

45) 『內鍼醫先生案』, 『승정원일기』; 박훈평. 조선의인지.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2. p.462.

이하 『議藥同參先生案』, 『內鍼醫先生案』은 모두 이우성이 정리한 『瘡疹集』 중에 수록되어 있는 것을 활용했다(저자 미상. 內鍼醫先生案, 議藥同參先生案. 이우성 편. 瘡疹集外一種. 서울. 亞細亞文化社. 1996).

46) 『승정원일기』 경종 2(1722)년 11월 23일; 『青城雜記』 「醒言」 「任瑞鳳」. 한국고전종합DB [cited 2017 Jan 20]: Available from: URL: <http://db.itkc.or.kr>; 김두중. 한국 의학사. 서울. 탐구당. 1981. pp.340-341.

47) 黃道淵. 醫方活套. 金信根 編. 韓國科學技術史資料大系 27 권. 서울. 여강출판사. 1988. p.88.

48) 黃道淵. 醫宗損益. 金信根 編. 韓國科學技術史資料大系 25 권. 서울. 여강출판사. 1988. pp.3-11.

49) 이 부분은 2017년 3월 25일 전북대에서 개최된 제 7회 한일과학사세미나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 게재했다(오재근. 조선 말기 의가 황도연(黃道淵)과 그의 또 다른 이름 황도순(黃道淳). 제7회 한일과학사세미나자료집. 2017. pp.60-70). 4월 22일, 1차 논문 투고 이후, 5월 18일자 민족의학신문 지상에 본고 작성에 도움을 준 최순화 외 2인이 “황도연은 황도순이 개명한 이름이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한 것을 확인했다. 저자들에게 문의한 결

과, 필자의 한일과학사세미나 발표 원고와 무관하게 자신들이 진행한 연구 결과를 기고한 것이며 『난초(爛抄)』와 관련된 일부 논거에서 차이가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난초』는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중에 공개된 자료로 필자 역시 검토한 바 있다. 다만, 작성자 및 작성 시기와 관련하여 살펴볼 점이 있어 3월 발표문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가 4월 논문 투고를 앞두고 관련 내용을 추가해 본문 중에 포함시켰다. 본고의 작성에 최순화 외 2인이 2017년 5월 18일 이래 연속 기고하고 있는 『민족의학신문』 기사가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50) 黃厚淵 編. 昌原黃氏世譜(v.11 25b).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cited 2017 Jan 20]: Available from: URL: <http://yoksa.aks.ac.kr>.

51) 黃道淵. 方藥合編. 金信根 編. 韓國科學技術史資料大系 27 권. 서울. 여강출판사. 1988. p.203. “公年已七十有七... 是年八月十七日下世... 既葬後二月拭涕卒業.”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大阪. 自家出版. 1962. p.282; 김두중. 한국 의학사. 서울. 탐구당. 1981. p.456; 노대환. 愼村 黃泌秀(1842-1914)의 사상적 행보. 한국학 연구. 2015. 37. p.481, 484; 이진철. 『醫宗損益』을 통해 본 황도연의 의학사상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p.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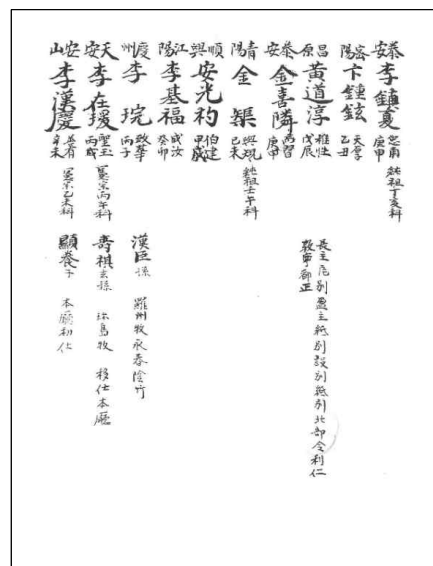
Fig 2. The part of Hwang Doyeon in *the genealogy of Changwon Hwangs*. 『창원 황씨세보』 병오신간보 중 황도연 부분



도연의 실제 사망년도 일 것이라 추정했다.⁵²⁾ 황필수가 지은 「방약합편원인」 중의 아버지 황도연 졸기(卒記)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 1884년에 사망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황필수 생전에 편찬된 1905년 『창원황씨세보』 중의 표기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사망 년도 확정을 위해서는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

후대에 발간된 다수의 황도연 관련 저서들은 ‘황도연(黃道淵)’을 ‘황도연(黃道淵)’이라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부방편람』 이후 편찬된 『의중손익』, 『의방활투』, 『방약합편』 등에서는 ‘혜암(惠菴)’으로 저자 표기를 하고 있으며, 황도연의 아들 황필수가 기술한 「방약합편원인」이나 현공렴(玄公廉)이 『신증중맥방약합편(新增證脈方藥合編)』을 편찬하면서 추가한 표지 글에서도 ‘혜암’ 이외의 저자명 표기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후대의 신길구, 정택, 안병국, 이종형 등에 의해 이루어진 ‘황도연(黃道淵)’이라는 저자명 표기는 세간에 전해지던 인명 표기를 옮긴 것이거나 임의로 기입한 것이라 판단된다.⁵³⁾

Fig 3. The part of Hwang Dosun in *the Record of officers to discuss medicine with other medical officers*. 『의약동참선생안』 중 황도순 부분



『의약동참선생안(議藥同參先生案)』에 따르면, 황

52) 황연규. 《醫方活套》의 黃道淵선생에 대한 疑問들. 慶南韓醫會誌. 2008. 35. pp.178-179.

53) 신길구, 정택, 안병국의 ‘黃道淵’ 기재 사항은 황연규의 선행 연구를 통해 인지했으며(황연규. 《醫方活套》의 黃道淵선생에 대한 疑問들. 慶南韓醫會誌. 2008. 35. p.179), 개별 내용은 모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고전명저총서 홈페이지 중의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고전명저총서 [검색날짜 2017년 1월 20일]: Available from: URL: <http://jisik.kiom.re.kr/>; 申信求,

藥物學講義(第三講). 東洋醫學. 1955. 1(3); 鄭澤. 醫學徒가 본 東洋醫學. 東洋醫學. 1947. 1(1); 안병국. 序文. 金弘濟. 一金方. 京城. 趙鼎久方. 1976), 李鍾馨. 韓國東醫學史.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편. 韓國文化史大系. 서울.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77. p.269.

도순(黃道淳)은 황도연과 같은 해인 1808(戊辰)년에 출생했으며, 자는 치성(稚性)이었다.⁵⁴⁾ 관직은 부사과(副司果), 조지별제(造紙別提), 빙고별제(氷庫別提), 북부령(北部令)을 거쳐 정3품 당상관 돈녕부 도정(敦寧都正)에 이르렀다(그림 3).⁵⁵⁾ 황도순의 의학 관련 기록은 『승정원일기』나 『약방일기』 중에서 확인되나, “좌우 세 부분의 맥이 고르긴 하나 우측 세 부분에서 약간 부맥이 나타나고 있어 미약하지만 체한 징후가 있습니다.”⁵⁶⁾ 등의 진맥 결과만 소개하고 있을 뿐 그가 활용했던 치료법이나 방제 등은 제시되고 있지 않다. 다만, 황도순은 1848년 도제조 김도희(金道喜)로부터 의술이 뛰어난다는 평가를 받았고,⁵⁷⁾ 의과(醫科) 출신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말기 현종(憲宗, 1827-1849), 철종(哲宗, 1831-1864), 고종(高宗, 1852-1919)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격변기 한복판에서 20여 년 동안 정기적으로 왕을 진찰하는 약방입진(藥方入診)에 수의(首醫) 진경환(秦慶煥), 정유증(鄭有曾), 이경년(李慶年) 등과 함께 70차례 이상 입시했던 만큼⁵⁸⁾ 조선 말기를 대표하는 의관이었던 것만큼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황도연과 황도순,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창원황씨세보』와 『의약동참선생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두 사람 모두 1808년에 출생했으며, 북부령이라는 관직을 지냈고, 의학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했을 것이라는 사실 뿐이다.

“이전에 령(令)을 역임한 황도순(黃道淳)이 이름을 도연(度淵)으로 바꿨습니다.”⁵⁹⁾

조선 말기 인사 관계 기록을 기록하고 있는 『난초(爛抄)』의 1873년 9월 9일 기사에는 위와 같은 문장이 실려 있다.⁶⁰⁾ 황도순이 황도연으로 개명했다는 기사이지만, 인용문 중에 기재된 ‘도연’이 ‘해암 황도연’과 동일 인물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아래 몇 가지 사항들은 황도순과 황도연이 동일 인물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한다.

첫 번째, 일제시기에 발간된 공식 및 비공식 기록들이 이 둘을 동일 인물로 여기고 있다. 1915년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조선도서해제(朝鮮圖書解題)』 중에는 “『신식유서필지(新式儒胥必知)』의 편자가 신촌자(愼村子)라고 하나 누구인지 알려져 있지 않다”라고 기술되어 있다.⁶¹⁾ ‘신촌자’는 황도연의 아들인 황필수의 호이다.⁶²⁾ 그로부터 4년이 지나 1919년에 증보 발간된 『조선도서해제』에서는 『신식유서필지』의 저자를 “호는 해암, 창원 사람으로 도정 벼슬을 했던 도순(道淳)의 아들로 고종 무렵 입시를 하여 관직이 군수에 이르렀다. 순종 때에 죽었다”라고 설명하며,⁶³⁾ 저자 황필수가 황도순의 아들임을 명시했다. 일부 연구에서는 해암은 그의 아버지인 황도연의 호라고 지적하며 『조선도서해제』의 기술에 대해 오류투성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지만,⁶⁴⁾

<http://yoksa.aks.ac.kr>. “癸酉九月初九日... 吏曹啓目, 司饗主夫李師在名字改以喆在, 前令黃道淳名字改以度淵事.”

54) 저자 미상. 議藥同參先生案. 이우성 편. 瘡疹集外一種. 서울. 亞細亞文化社. 1996. p.532.

55) 박훈평. 조선의인지. 과주. 한국학술정보. 2012. p.571; 이규근. 조선 후기 議藥同參 연구. 朝鮮時代史學報. 2001. 19. pp.132-133.

56) 『승정원일기』 현종 15(1849)년 4월 10일.

57) 『승정원일기』 현종 14(1848)년 3월 25일.

58) 『승정원일기』, 『약방일기』.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cited 2017 Jan 20]: Available from: URL: <http://yoksa.aks.ac.kr>.

59) 『爛抄』 8.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cited 2017 Jan 20]: Available from: URL:

60) 현재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에서는 해당 문장이 실려 있는 책자의 편자를 윤치희(尹致羲, 1707-1866)로 기술하고 있어 인용 문장 중의 계유년을 1813년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어서 소개되고 있는 김유행(金裕行, 1845-?), 이만형(李晩滢, 1825-1877)이 각각 고리, 부교리로 낙점되는 내용은 『승정원일기』 1873년 9월 9일의 기사 중에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爛抄』의 기재 시점은 1813년이 아닌 1873년으로 추정된다. 『爛抄』의 편자 역시 윤치희로 볼 수는 없다.

61) 朝鮮總督府 編. 朝鮮圖書解題. 朝鮮總督府. 1915. p.187.

62) 노대환. 愼村 黃泌秀(1842-1914)의 사상적 행보. 한국학연구. 2015. 37. pp.479-481.

63) 朝鮮總督府 編. 朝鮮圖書解題. 朝鮮總督府. 1919. p.446; 朝鮮總督府 編. 朝鮮圖書解題. 京城. 朝鮮通信社. 1932. p.349.

64) 金鍾天. 黃泌秀와 그의 편간서들. 서지학연구. 1994. 10. p.275; 노대환. 愼村 黃泌秀(1842-1914)의 사상적 행보.

1915년 발간본 『조선도서해제』에서 『신식유서필지』 편자의 호는 신촌자로 밝혔고, 1919년 발간본 중에서는 편자가 황도순의 아들이라고 밝히고 있는 이상 황필수와 황도순을 부자 관계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남감리교 선교사로 내한해 세브란스 병원에서 안이비인후과 의사로 활동한 보우먼(Bowman, N. H)은 1915년 왕립아세아학회에 한국의학사 관련 보고서(The History of Korean Medicine)를 제출하며 『방약합편』의 저자를 석정동에 거주하던 ‘황도순(黃道淳, Whang-do-soon)’이라고 기재했다.⁶⁵⁾ 일제 강점기에 편찬된 또 다른 의서 『의학류취(醫學類聚)』 역시 ‘혜암 황도순(惠菴 黃道淳)’이라고 기술하여 혜암과 황도순을 동일 인물로 명기했으며,⁶⁶⁾ 마에마코야사쿠(前間恭作)가 1928년에 편찬한 한국전적 해제서 『고선책보(古鮮冊譜)』에서는 『의중손익』과 『의방활투』의 저자에 대해 각각 “황도순(黃道純) 저, 호는 혜암(惠庵), 동치(同治) 년간의 의관이였다”, “황도순(黃道純) 저, 철종 조의 내의(內醫)로 호는 용암(庸庵)”라고 기재한 뒤, 황도순(黃道淳)의 ‘순(淳)’은 ‘순(純)’의 오기라는 견해까지도 밝혀두고 있다.⁶⁷⁾ 보우먼의 기사에 대해서는 정보의 신빙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 있고,⁶⁸⁾ 각각의 서적들이 조

금씩 기재 상의 차이를 보이고도 있지만, 황도순을 『의중손익』, 『의방활투』, 『방약합편』 등의 저자로 보고 있는 점과 황도순의 호를 혜암이라 기록하고 있는 점 등은 공통되어 황도순과 황도연을 동일 인물이라 간주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두 번째, 황도연이 편찬한 의서 『의중손익』 중에는 당대의 내의원 의관이 아니면 접하기 힘든 자료들이 인용되어 있다.

“육미지황환. ... 영조 병술(1766)년에 만전탕이라는 이름을 내렸다. 『내국일기』”⁶⁹⁾

“신력탕. ... 영조 병술(1766)년에 왕에게 탕약을 올렸다. 신력탕에 녹용과 원지를 ... 더 넣었다. 순조 계해(1803)년에 동조(東朝)의 오른쪽에 마비가 약간 생겼다. 신력탕에서 황기, 오미자는 빼고 ... 인삼 두돈 반을 더 넣었다. 『내국일기』”⁷⁰⁾

“이중건공탕. 영조 때 왕에게 쓴 탕약이다. 건공이라는 두 글자는 무인(1758)년에 왕이 하사한 이름이다... 정축(1757)년부터 병신(1776)년까지 만 여 첩을 썼다. 『내국일기』”⁷¹⁾

“청위산. ... 익종(翼宗)이 풍열로 이빨이 아팠다. 중국에서 수입한 백옥고를 잇몸에 붙였더니 효과가 있었다. 『영운사선방』”⁷²⁾

한국학연구. 2015. 37. p.482.

65) 여인석. 한말과 일제시기 선교의사들의 전통의학 인식과 연구. 의사학. 2006. 15(1). p.15; Bowman, N. H. The History of Korean Medicine. *Transactions of the Korean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1915. VI(1). p.34.

Bowman은 황도순이 석정동에 살고 있다고 언급했고, 김두중과 미키사카에는 황도연이 무교동에서 의업을 경영했다라고 기재했다(김두중. 한국의학사. 서울. 탐구당. 1981. p.456;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大阪. 自家出版. 1962. p.257). 『의중손익』 표제지 중에 기재된 “武橋贊化堂藏板”의 贊化堂이 황도연이 거주하던 집이었는지, 운영하던 약국이었는지, 경관본을 출간하던 간행처였는지 여부는 분명치 않다. 다만, 1914년 4월 1일부터 실시된 경성부의 186개 丁, 丁目, 洞의 편제에서 석정동 일부와 무교동 일부가 茶屋町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미뤄볼 때 두 지역은 서로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66) 안상우. 民間에 흩어진 醫藥經驗 모아모아. 고의서산책 729. 민족의학신문. 2016. 5. 20.

67) 前間恭作. 古鮮冊譜 1. 東京. 東洋文庫. 1944. pp.14-15.

68) 여인석. 한말과 일제시기 선교의사들의 전통의학 인식과 연구. 의사학. 2006. 15(1). pp.16-17; 황연규. 《醫方活套》의 黃度淵선생에 대한 疑問들. 慶南韓醫會誌. 2008. 35. pp.179-180.

69) 黃度淵. 醫宗損益. 金信根 編. 韓國科學技術史資料大系 25 권. 서울. 여강출판사. 1988. p.111. “六味地黃丸... 英廟朝丙戌, 賜名萬全湯. 內局日記”

70) 黃度淵. 醫宗損益. 金信根 編. 韓國科學技術史資料大系 25 권. 서울. 여강출판사. 1988. p.340. 『醫宗損益』 卷六 「風」 “腎瀝湯... 英廟朝丙戌, 進御湯劑, 加鹿茸遠志一兩人參附子各五錢. 純廟朝癸亥, 東朝, 徵患右部之麻痺, 去黃芪五味子... 人參二錢半. 內局日記”

71) 黃度淵. 醫宗損益. 金信根 編. 韓國科學技術史資料大系 26 권. 서울. 여강출판사. 1988. p.67. “理中建功湯... 英廟朝, 進御湯劑也. 建功二字, 戊寅賜名... ○自丁丑至丙申所進幾至萬貼. 內局日記”

르면 황도순은 1847년 종9품 말직인 부사용(副司勇)에 단부(單付)되어 의약동참 업무를 개시했으며, 1849년 종6품 부사과, 1855년 장흥고주부(長興庫主簿), 의영고주부(義盈庫主簿), 1857년 전설사별제(典設司別提), 빙고별제, 1859년 조지별제 등을 거쳐 1861년에 종5품 북부령, 1862년 종6품 이인찰방(利仁察訪)에 제수됐다. 이후 1864년 모친상을 마치고 난 뒤, 다시 부사과에 임명됐다가 1870년 의약동참에서 감하(減下)됐다.⁷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약동참선생안』에서는 그의 관직이 돈녕부 도정까지 이르렀다고 기재하고 있다. 『승정원일기』에서는 해당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1870년 이후에 제수됐거나 사후 추증됐을 것이라 여겨진다. 족보와 시문에 기록된 황도연의 관직 이력 그리고 『승정원일기』와 『의약동참선생안』에 기재된 황도순의 관직 이력을 견주어볼 때, 모두 1808년에 태어나, 뛰어난 의술을 인정받아 의약동참 형식으로 의관이 됐으며, 비슷한 시기에 북부령이라는 관직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인다. 두 인물의 관직 이력이 절묘하게 합치되고 있는 것이다.

네 번째, 승정원일기에 기록되어 있는 황도순 모친의 사망 일자와 족보 중에 기재된 황도연 모친의 사망 일자가 거의 동일하다. 『승정원일기』 1864년 10월 9일 기사 중에서는 황도순이 3년상을 마치고 본원에 환속해 병조에서 부사과(副司果)에 제수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⁷⁹⁾ 『창원황씨세보』 병오신간보에 따르면 황도연의 부친 황종현(黃鍾鉉)은 영조 계미(1763)년에 태어나 순조 신사(1821)년에 사망했다. 첫 번째 부인 전주이씨는 신묘(1771)년에 태어나 무오(1858)년에 사망했으며 황도연의 생모로 추정되는 두 번째 부인 선산김씨는 병오(1786)년에 태어나 임술(1862)년 윤8월에 사망했다. 따라서 『승정원일기』 기사는 황도연이 선산김씨의 3년상을 마

치고 환속했음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황연규는 황도순과 황도연을 같은 인물로 볼 수 없는 근거로 모친의 사망년도는 1862년이고 부친의 사망년도는 훨씬 이전인 1821년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제시했지만⁸⁰⁾ 타당성이 부족해보이며, 오히려 『승정원일기』에 기재된 황도순과 황도연이 동일 인물임을 강화시켜주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요컨대, 의서 『의종손익』의 저자의 신분은 민간에서 활동하던 일반적인 의가가 아니었다. 그는 조선 국왕과 세자의 의료 정보가 담겨있던 『내국일기』를 열람할 수 있었고, 심지어 관련 내용을 개괄할 수도 있었던 상당한 실력을 갖춘 내의원 소속 의관이였다. 따라서 『의종손익』의 저자 해암 황도연과 동일한 해에 태어나, 의업을 수행하고 의관이 되었으며, 비슷한 시기 북부령이라는 관직을 제수 받은 황도순은 동일 인물이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단정할 수 없지만, 『난초』 중에 기재된 전직 령(令) 황도순의 이름 변경 기록 역시 의관 황도순이 황도연으로 개명했음을 알리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황도연으로 개명을 하고난 1873년 9월 9일 이후 『승정원일기』에서 ‘황도순’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으며, 1882년 ‘황도연(黃度淵)’ 만이 참방에서 가자(加資)되거나,⁸¹⁾ 종4품 부호군(副護軍), 정3품 첨지(僉知), 오위장(五衛將)으로 단부(單付)되기 위해 등장하고 있을 뿐이다.⁸²⁾

4. 의관 황도연의 의학과 조선 후기 의학의 재해석

‘황도연’이 의약동참으로 관직에 올라 20여 년간

80) 황연규. 《醫方活套》의 黃度淵선생에 대한 疑問들. 慶南韓醫會誌. 2008. 35. p.180.

81) 『승정원일기』 고종 19(1882)년 1월 22일.

82) 『승정원일기』 고종 19(1882)년 1월 22, 23, 27일, 3월 3일.

『승정원일기』 고종 9년-10년의 기사 중에 黃道淵이라는 이름의 인물이 등장한다. 그는 全羅左水營火砲이자 武科殿試에 참여한 실직 무관으로 소개되고 있어 의관으로 체 아직 무관에 임명되었던 黃度淵과는 거리가 있다. 『의약동참선생안』 黃道淳 항목에는 副護軍, 僉知, 五衛將 등의 관직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같은 품계에 해당하는 정3품 敦寧都正 만이 기재되어 있다.

路·頒火·禁火·里門의警戒와 守直, 家屋과 堡地의 測量, 屍體의 檢査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한국고전국역위원회 역주. 國譯大典會通.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1960. p.67).

78) 『승정원일기』; 저자 미상. 議藥同參先生案. 이우성 편. 瘡疹集外一種. 서울. 亞細亞文化社. 1996. p.532.

79) 『승정원일기』 고종 1(1864)년 10월 9일.

어의(御醫) 역할을 수행했던 의관 ‘황도순’과 동일 인물이라는 가정은 기존의 한국의학사 서술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첫 번째,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조선 후기 의학을 관의학과 민간의학의 교류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으로 보인다. 1894년 갑오 개혁으로 기존의 관제가 혁파되기까지 조선의 의료 기관은 시대에 따라 다소의 변화는 있었지만 전시대를 걸쳐 『경국대전』을 수용하며 전의감·혜민서·내의원 등의 기존 체제를 유지해왔다.⁸³⁾ 후기에 접어들어 서반 경관직과 동반 외관직의 총수가 81개에서 77개로 줄어드는 등 의료 기관의 직제는 축소되어 갔다.⁸⁴⁾ 한편 민간 부분에서의 의약 활동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었다. 신동원, 김성수 등의 연구에 따르면 조선 후기에 접어들어 전국적으로 의원 및 약국의 숫자가 늘어났으며 의원 및 약국 간의 경쟁이 심화되어 시장경제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⁸⁵⁾

1658년 7월, 병을 앓고 있던 효종이 2달이 넘도록 치료되지 않자 사헌부에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으고 절충하기 위해 서울 그리고 그 바깥에서 침약으로 저명한 사람을 내국으로 불러들이자는 계를 올렸다. 주변의 웃음거리를 살 수도 있으니 주의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경상도의 침의(鍼醫) 권보(權輔), 약의(藥醫) 신응제(愼應悌), 충청도의 양발(梁潑) 등 십여 명의 의원들이 거론됐다. 이 때 불려온 윤인미(尹仁美)·성후룡(成後龍) 등은 어의들과 상의해 기존에 복용하던 약물을 중지시키고 청위사화탕가감방을 처방했다.⁸⁶⁾ 민간에서 활동하던 의원들이

의과 시험을 통과한 정규 의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급기야 현종 14(1673)년에는 의약동참청이 상설기구로 설치되어, 내의원이 본청(本廳), 침의청(鍼醫廳), 의약동참청(議藥同參廳)의 삼청(三廳) 체제로 운영되기에 이르렀다.⁸⁷⁾ 조선 후기에 확대 운영되기 시작한 의약동참제도는 민간 의약 시장이 내의원 정규 의관들과 경쟁할 정도의 의원을 수급할 수 있을 정도로 활성화 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수준 역시 상당히 높았음을 시사한다. 실제 의약동참청에는 양반 신분의 의의(儒醫)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중인이나 지방의 사인(士人)에 이르는 다양한 계층의 의사들로 구성되어⁸⁸⁾ 민간의원들이 중앙의료기관으로 유입되는 통로 역할을 수행했다. 황도연은 민간의원으로서의 명성에 힘입어 의약동참 형식으로 의관에 선발됐으며 어의로서 국왕의 정기 진료에 참여했다. 국왕의 진료에 입시했던 의원들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는 『승정원일기』, 『약방일기』와 의약동참 의관 목록인 『의약동참선생안』에 따르면, 황도연과 함께 국왕을 진료했던 의관은 33명 정도였으며 그 중 14명이 의약동참청 소속이었다.⁸⁹⁾ 황도연의 사례는 정식 과거를 거치지 않은 채 명성과 실력만으로 의관에 선발되었다는 점 뿐 아니라 20여 년간 3명의 임금을 거쳐 가면서도 여전히 어의로 활동할 수 있었다는 점, 그와 함께했던 의관의 절반가량이 의약동참 출신이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주목된다. 조선 후기 관의학과 민간의학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주요 사례인 것이다.

83) 김두중. 한국의학사. 서울. 탐구당. 1981. p.417.

84) 김양수. 조선시대 醫員實態와 지방관진출. 東方學志. 1999. 104. p.228.

직제가 축소되어 갔던 것과 달리 조선 후기 많은 의관들이 현관으로 임명되어 의관의 사회적 지위는 향상된 것으로 평가된다. 의관이 현관으로 임명된 수는 전체 중인이 현관실직을 역임한 숫자의 40%를 상회한다(김진. 조선시대 醫官選拔. 東方學志. 1999. 104. p.83, 87).

85) 신동원. 조선시대 지방의료의 성장. 한국사연구. 2006. 135. pp.15-26; 신동원. 조선 후기 의약생활의 변화. 역사비평. 2006. 75. pp.368-391; 김성수. 朝鮮後期 私的 醫療의 성장과 醫業에 대한 인식 전환. 의사학. 2009. 18(1). pp.52-66.

86) 『승정원일기』 효종 9(1658)년 7월 27일 6/11, 10/11.

87) 홍세영. 왕실의 議藥. 한국의사학회지. 2010. 23(1). p.108.

의약동참에 대한 본격 연구를 수행한 홍세영은 『의약동참선생안』에 수록된 의가들 중에 정각(鄭喆)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인조 년간 이후에 활동한 인물들인 것을 근거로 의약동참 제도가 본격 시행된 것은 인조 무렵이고 완전히 정착된 것은 현종 14년 이후일 것이라고 추정했다(홍세영. 왕실의 議藥. 한국의사학회지. 2010. 23(1). pp.107-108).

88) 이규근. 조선후기 議藥同參 연구. 朝鮮時代史學報. 2001. 19. p.122; 홍세영. 왕실의 議藥. 한국의사학회지. 2010. 23(1). pp.109-110.

89) 14명의 명단 전체는 金集, 金有鼎, 金亨選, 卞鍾鉉, 李基福, 李琬, 李在瑗, 李鎭夏, 李忠淵, 李漢慶, 鄭禮秀, 鄭麟夏, 韓相瑚, 洪翼善이다.

한국 의학사 서술의 근간을 세운 미키사카에는 고종 시대 한의학을 민간의원 황도연의 간요(簡要) 의학과 이제마의 사상의학, 관의파(官醫派)의 쇠퇴와 존속, 학문적 가치가 없는 소규모 의서들의 출현으로 구분 기술했다.⁹⁰⁾ 그리고 황도연의 의학에 대해 “고종 시대, 국세가 쇠미해지고 의학이 저하되더라도 육체적 고뇌인 질병을 도의시하거나 의술을 등한히 할 수는 없었다. 이런 사회 상황에 순응하여 나타난 것이 황도연의 의학이었다. 간단하고 편리한 실용 의학이 시대적 요구에 의해 탄생했던 것이다”라는 평가를 내렸다.⁹¹⁾ 미키사카에의 평가는 조선 후기에 이루어진 민간의학 분야의 성장이나 의약동참과 같은 관의학과 민간의학 간의 관련성을 도의시켰을 뿐 아니라, 신장건(慎瘡健)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일부 의가를 중심으로 당대 의학을 서술하고자 했던 영웅주의적 역사관, 조선 왕조가 쇠락하자 조선의 전통 의학 역시 함께 쇠락했다는 왕조 성쇠를 중심으로 한 역사관에 입각한 것이었다.⁹²⁾ 황도연은 헌종 13(1847)년에 의약동참으로 의관이 됐으며, 철종 2년(1851)에 주로 활동하다가, 고종 7(1870)년에 의약동참에서 감하됐다. 비록 두 권의 의서 『의종손익』(1868)과 『의방활투』(1869)가 고종 년간에 편찬됐고, 고종 재위 초기까지 의약동참으로 활동했지만, 『부방편람』(1855)을 편찬하며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던 순조·헌종·철종 재위 기간(1801-1863)을 제쳐두고, 굳이 고종 재위 기간(1864-1906)에 활동한 의가로 분류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조선 왕조를 마무리하던 고종의 치세와 간단하고 편리하기만 했던 황도연의 의학을 병치시키고자 했던 미키사카에의 숨은 의도가 깔려져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부방편람』과 『의종손익』은 『동의보감』을 근간으로 하되 각각 『본초강목』의 박물학적 성과와 장개빈의 온보 의학을 성과를 섭렵한 전문 의서였으며, 『의종손익』 중에는 내의원 소속 의관이 아니면 습득

할 수 없는 의학 지식과 의약 경험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의방활투』는 『의종손익』 편찬 이후 주변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 초보자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1년 6개월 만에 편찬해낸 소책자 의서였다. 따라서 그를 순수 민간의원이라 간주하고, 그의 의학을 쇠락한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여 등장한 간단하고 편리한 실용 의학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저자 황도연의 관직 경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의 의서 중에서도 『의방활투』 또는 『방약합편』의 성과만을 주목한 일면적인 평가에 불과하다. 오히려 황도연의 의서는 조선 전기, 관(官)에서 민간으로라는 하향식으로 흘러갔던 의학 지식 생산 및 유통이 조선 후기에 이르러 민간의학의 발전과 함께 민간에서 관으로 들어갔다가 재차 민간으로 환류되어 나오는 새로운 관계에 주목해야 함을 시사한다.

두 번째, 황도연의 의서들이 그가 20여 년간 내의원 의관을 역임한 이후 편찬된 것이라면 그것을 기반으로 조선 후기 의학의 중심적 흐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짐작해볼 수 있다. 황도연이 활동하던 당시, 중국에서는 강소·절강 지역을 중심으로 열성 돌림병, 온역(瘟疫)이 치성했다.⁹³⁾ 온역은 두창, 페스트, 콜레라, 디프테리아, 이질 등을 포괄하는 질병 분류로, 의서에 따라 온역 단독으로 혹은 객란, 소아, 부인의 하위 항목으로 편제된다.⁹⁴⁾ 현재 중국 청대 의학의 최대 성과로는 온병(溫病)이라 명명된 열성 돌림병, 온역에 대처하는 새로운 의학 이론인 온병학설의 형성과 그 성취가 손꼽히고 있다.⁹⁵⁾ 그 중에서도 온병학과 의가 왕사용(王士雄, 1808-1868)과 그의 의서 『객란론(霍亂論)』은 객란, 즉 콜레라에 대해 높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⁹⁶⁾ 황도연은 『의종손익』 「인용제서(引用諸書)」 중에서 청대의 상한·온병 의학 흐름을 주도했던 유창(喻昌), 장로(張璐),⁹⁷⁾ 섭계(葉桂), 오겸(吳謙) 등

90)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大阪. 自家出版. 1962. pp.257-260.

91)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大阪. 自家出版. 1962. p.257.

92) 慎瘡健. 醫學史家·三木榮(1903-1992)の讀み方. 제7회 한일과학사세미나자료집. 2017. pp.192-193.

93) 张志斌. 中国古代疫病流行年表. 福州. 福建科学技术出版社. 2007. p.131.

94) 余新忠. 清代江南的瘟疫与社会. 北京. 北京师范大学出版社. 2014. pp.8-9, 70-104.

95) 廖育群, 傅芳, 郑金生. 中国科学技术史 医学卷. 北京. 科学出版社. 1998. p.367.

96) 余新忠. 清代江南的瘟疫与社会. 北京. 北京师范大学出版社. 2014. p.78.

의 저작이나 『마진찬요』, 『두진회통』 등을 소개하며⁹⁸⁾ 당대 중국 의학의 흐름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의 의서 중에서 온병학 이론이나 온병 치료를 위한 약물, 방제 등은 확 인되지 않는다. 그는 당대의 돌림병이었던 콜레라 역시 온역(瘟疫)이 아닌 광란(霍亂)의 하위 병증으로 분류했다. 온역으로 보기에는 상한(傷寒)과의 관련성이 크지 않고 습열의 병인이나 복통·설사 등의 증상이 광란과 유사했기 때문이었다.⁹⁹⁾ 분변이나 구토 물로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통해 감염된다는 콜레라의 특징을 파악하지 못한 점,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왕사옹은 콜레라에 대처하기 위해 물, 음식, 주거 환경 등을 청결하게 관리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황도연은 관련된 논의를 전혀 꺼내지 못했던 점 등은 그의 대처법이 지니고 있는 분명한 한계였다.¹⁰⁰⁾

황도연의 콜레라 대처법은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처음 마주한 돌림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병 원인을 분석한 뒤 서습광란이라는 정의를 내린 점, 두 번째, 탈수로 인한 진액의 모순이 가장 중요한 병리적 특징임을 확인한 점, 세 번째, 증상을 구분하고 나름의 대처법을 제시한 점, 네 번째, 음양실상(陰陽失常)이라는 대원칙 하에 치료를 위한 가장 좋은 방제로 황련탕을 제시한 점 등이다. 황도연이나 왕사옹을 비롯한 중국의 온병학과 의가들 역시 콜레라를 서습광란이라고 명명하고, 탈수로 인한 진액 모순이 가장 위중함을 언급했다. 다만, 온병학 이론에 따른

콜레라의 치료법과 치료 방제를 제시한 왕사옹 등과 달리 황도연은 이를 광란의 일종으로 분류하고 그에 합당한 방제를 제시했다. 중국에서 유행하던 상한·온병 의학의 틀에 편입되지 않은 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신과 조선 의가들에게 익숙한 『동의보감』의 의학적 틀을 근간으로 처음 마주한 콜레라에 대처해왔던 것이다. 황도연은 비록 온병학과 의가들 처럼 새로운 의학적 틀을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단순히 통치방에 의존해 콜레라와 같은 유행병에 대처하려는 것을 경계하고, 음양, 남녀노소, 표리허실, 신구경중(新舊輕重) 등을 기준으로 의학적 이치(理)를 토대로 접근해 갈 것을 역설했다.¹⁰¹⁾ 그리고 그 성과는 가전경험방(家傳經驗方)이라는 설명과 함께 『방약합편』 일부 판본 권말에 「신사년 이후에 수집된 윤증광란 치료 방제(輪症霍亂自辛巳以後集驗方)」로 첨부됐다.¹⁰²⁾ 광란 외에 열성 돌림병인 홍역(麻疹)에 대해서도 임서봉, 이몽수, 이경화, 조경준 등 조선 의가들의 임상 경험을 취합하며 조선 의학의 돌림병 치료 경험 역시 정리해냈다. 이는 당대 조선 의학이 동아시아 보편성을 유지하면서도 『동의보감』을 토대로 정립된 의학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¹⁰³⁾

『의종손익』 중에 청대 온병 의학의 성과가 누락되어 있는 점에 대해 청대 의학의 성과가 조선에 미처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또는 조선에서는 온병이 유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등의 논의가 있다.¹⁰⁴⁾ 『의종손익』의 저자로서 황도연이 지니고 있

97) 『醫宗損益』「引用諸書」에서는 『傷寒大成』의 저자 張璐의 이름을 韓璐로 표기하고 있으나 字를 路玉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 韓璐는 張璐의 오기로 보인다.
98) 喻昌, 張璐, 吳謙은 중요 傷寒 의가로 錯簡重訂派로 손꼽힌다(叶发正. 傷寒學術史. 武昌. 华中师范大学出版社. 1995. pp.93-99). 喻昌은 온병학 이론 발전에도 중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葉桂는 溫熱大師로 불릴 정도로 온병학의 최고 권위자로 손꼽히고 있다(彭胜利 主编. 中医药高级丛书 温病学. 北京. 人民卫生出版社. 2000. p.11).
99) 黃度淵. 醫宗損益. 金信根 撰. 韓國科學技術史資料大系 26 권. 서울. 여강출판사. 1988. pp.78-80, 159-160.
100) 王士雄의 광란 대처법에 대해서는 盛增秀의 선행 연구 참조(盛增秀 主编. 王孟英医学学术思想研究. 王孟英医学全书. 北京: 中国中医药出版社. 1999. pp.930-935).

101) 黃度淵. 醫宗損益. 金信根 撰. 韓國科學技術史資料大系 26 권. 서울. 여강출판사. 1988. p.161.
102) 「輪症霍亂自辛巳以後集驗方」은 『의방활투』나 『방약합편』 초간본으로 추정되는 乙酉二月治洞新刊本 중에는 누락되어 있으나, 후대 간행된 『방약합편』 중에는 포함되어 있다. 그에 대한 분석은 조원준, 이선아의 선행 연구 참조(조원준, 이선아. 19세기 조선에서 유행한 콜레라에 대한 黃度淵의 의학적 대처.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07. 13(1). pp.37-42).
103) 『동의보감』 이후 상한 의학을 중심으로 살펴본 조선 의학의 중국, 일본 의학의 분기에 대해서는 오재근의 선행 연구 참조(CK Oh. The Cold Damage Medicine in 17-18th Century Korea: Comparison through the Medical Records of China, Japan, and Korea. HISTORIA SCIENTIARUM. 2014. 24(1). pp.17-21).
104) 이진철. 『醫宗損益』을 통해본 황도연의 의학사상 연구.

던 고민은 과거의 이론에 부합하면서도 시의 적절한 의학 지식으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있었다.¹⁰⁵⁾ 이와 같은 신중한 태도는 황도연이 다른 의가들과 차별화된 주장을 펼치며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일반 의가가 아닌 국왕을 보필했던 어의 출신 의관이자 당대 최고의 의학자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자세이기도 했다. 따라서 그가 새롭게 유입된 온병 의학 지식을 접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신중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검증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지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황도연은 『의종손익』 중에서 중두법을 소개하는 「중두심법요지(種痘心法要旨)」를 수록한 정약용의 『마과회통』이나 중두와 관련된 의료 지식을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청(淸)의 관찬 의서 『의종금감』을 인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두법에 대한 별다른 언급을 남기고 있지 않다. 「두창예방」 항목에서도 기존의 분류 및 대처 방법만이 소개되고 있을 뿐이며, 청대 의서 『전가보(傳家寶)』 중의 일부 내용이 금기로서 인용되고 있을 뿐이다.¹⁰⁶⁾

김정선, 황상익의 연구에 따르면 조선 후기 내의원에는 온보(溫補) 의학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¹⁰⁷⁾ 『의종손익』과 『의방활투』 혹은 『방약합편』은 황도연의 20여년에 걸친 의약동참 활동의 결과물이기도 했으므로 그 중에 나타나고 있는 온보 의학으로의 경도 양상은 어쩌면 조선 후기 내의원 의학 경향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 황도연 사후 건립된 대한제국은 서양 의학 교육 기관을 관립 의학 교육 기관으로 인정하고 전통적인 의관 선발 시험인 의과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기존의 전통 의사를 선발하고 교육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를 없앴다. 전의(典醫) 출신 홍철보(洪哲普), 장용준(張容駿) 등이 고종에게 청원을 하고 인허를 받아 전통 의학 교육 기관인 동제의학교(同濟醫學校)가 설립됐지만 개교 3년 만에 문을 닫고 말았다.¹⁰⁸⁾ 이와 별도로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마(李濟馬), 이규준(李圭駿)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의학 이론이 소개되고 있었으며, 심지어 하나의 학술 유파를 형성하기도 했다. 특히 경상도 지역에서 활동하던 이규준은 부양론(扶陽論)을 주창하며 장개빈 및 황도연과 동일하게 온보(溫補)의 치료법을 강조하고 또 그들이 제시했던 효능에 따른 약물 및 방제 분류 방법을 도입했다. 황도연의 의학이 한 시대를 풍미하는데 그치지 않고 후대에까지도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마련됐던 것이다.¹⁰⁹⁾

세 번째, 황도연의 의서 『방약합편』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황도연은 『의종손익』을 펴냈지만, 미숙한 사람들이 제대로 응용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다가 주변에서 짝이 될 만한 서적을 요구해오자 두드러지는 방제만을 모아 원활(活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정리한 방서 『의방활투』를 편찬했다.¹¹⁰⁾ 이후 15년이 지나 『의방활투』에 대한 재발간 요청이 일자 본초 정보를 부가해 방제 및 본초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의방활투』를 수정 편찬하고자 했다. 와병으로 인해 생전에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아들 황필수가 부친의 유지를 이어, 『의방활투』를 모본으로 삼은 채, 손익본초(損益本草) 즉 약성가를 본문 상단에 별도 배치하고, 용약강령·구급·금기 등을 포함시킨 『방약합편』을 편찬해냈다. 실제 『방약합편』과 『의방활투』는 ‘[활투]’ 표기를 통해 황도연의 목소리를 그대로 기재한 점, 『의방활투』 하통 164 포획환부터 169 소침환의 방제가 『방약합편』에서는 중통 175에서 180으로 옮겨간 점, 『의방활투』에는 없는 맥탕산을 추가한 점 이외에 별반 다르지 않다. 심지어 1885년 2월에 편찬된 『방약합편』 표제 하단에는 “『의방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pp.96-97.

105) 黃度淵. 醫宗損益. 金信根 編. 韓國科學技術史資料大系 25권. 서울. 여강출판사. 1988. pp.3-11.

106) 黃度淵. 醫宗損益. 金信根 編. 韓國科學技術史資料大系 26권. 서울. 여강출판사. 1988. pp.334-335.

107) 김정선, 황상익. 조선 후기 내원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의학 경향. 의사학. 2007. 16(2). p.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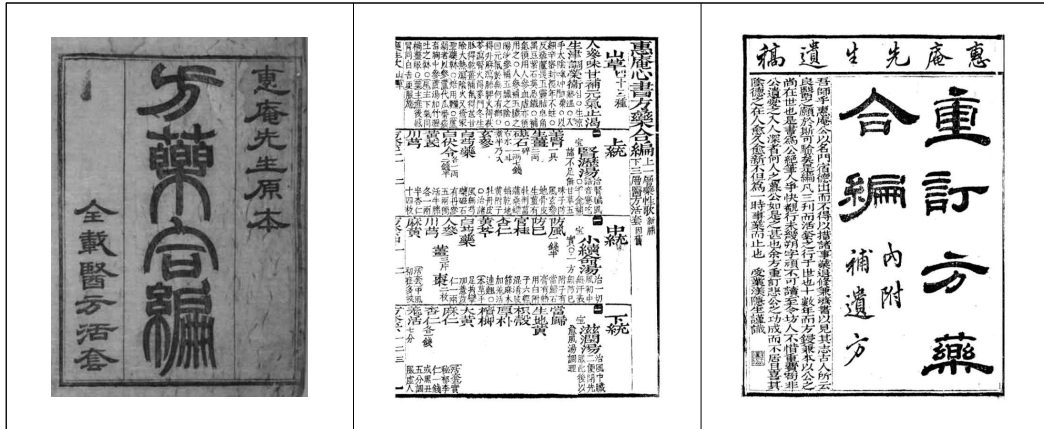
108) 李鍾馨. 韓國東醫學史.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편.

韓國文化史大系. 서울.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77. pp.280-281.

109) 장개빈이 『景岳全書』 「新方八陣」, 「古方八陣」 중에서 제시한 補·和·攻·散·寒·熱·固·因陣에서 황도연이 『방약합편』의 상·중·하통의 분류 기준으로 제시한 補·和·攻의 효능 구분이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이규준 의학의 특징과 후대로 이어지는 흐름에 대해서는 오재근의 선행 연구 참조(오재근. 부양학과. 한국 전통 의학 학술 유파의 탄생과 전승. 의사학. 2014. 23(1). pp.61-89).

110) 黃度淵. 醫方活套. 金信根 編. 韓國科學技術史資料大系 27권. 서울. 여강출판사. 1988. pp.5-6.

Fig 4. The cover of the *Compilation of Formulas and Medicinals* (left), a page of second revised *Compilation of Formulas and Medicinals* (middle), its cover (right). 을유이월 야동신간 『방약합편』 표지 (왼쪽) 을유중추 미동신간 『중정방약합편』 본문(가운데) 및 표지(오른쪽)



* 『방약합편』(왼쪽)은 디지털한글박물관 제공본이며, 『중정방약합편』(가운데, 오른쪽)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한古朝 68-31-2)이다.

활투』를 모두 옮겨 실었다(全載醫方活套)”라는 표기가 기입되어 있으며, 1885년 9월(中秋)에 편찬된 『방약합편』의 내제(內題) 「혜암심서방약합편(惠庵心書方藥合編)」 하단에는 “아래 3층은 과거의 의방활투이다(下三層醫方活套因舊)”라는 설명이 기입되어 있기도 하다(그림 4 왼쪽·가운데). 요컨대, 『의종손익』에서 요점을 뽑아낸 것이 『의방활투』였다면,¹¹¹⁾ 『방약합편』은 『의방활투』의 수정판이었다. 부록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의종손익』 중에 수록된 황도연의 임상 의학 성취, 그 중에서도 ‘증’ 항목은 『의방활투』를 통해 요약 정리했고, 『방약합편』은 ‘활투’ 표기와 함께 그 내용 전체를 전제하고 있다.

『방약합편』에 대해서는 간편하고도 실용에 적합하며 또는 응급적 참고에도 결할 수 없는 한의방의 편람서라는 실용 의서로서의 평가가 지배적이다.¹¹²⁾ 심지어 한문이 통용되던 시기 의료인 뿐 아니라 민간에까지도 널리 보급된 가정의서이기도 했다.¹¹³⁾

실제 경상도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이규준은 『방약합편』 상·중·하통 편제에 입각해 『의감중마(醫鑑重磨)』 「국방류선(局方類選)」을 편찬했으며,¹¹⁴⁾ 그릇을 납품하던 공인(貢人) 지구식(池圭植)은 서울 혜정교(惠政橋, 惠橋) 길가에서 7냥을 주고 『방약합편』과 다른 책 1권을 구입한 뒤 이를 토대로 간단한 병증은 스스로 해결하려 하기도 했다.¹¹⁵⁾ 위신중(余新忠)이 이야기했던 중국 청대 탕두가결(湯頭歌訣)류 의서 보급을 통해 이루어진 의학 지식의 통속화 과정이¹¹⁶⁾ 조선 말기 그리고 일본 강점기를 거치며 소책자 한의서 『방약합편』을 통해 이루어져 갔던 것

111) 黃度淵. 醫方活套. 金信根 編. 韓國科學技術史資料大系 27권. 서울. 여강출판사. 1988. p.3.
 112) 김두중. 한국의학사. 서울. 탐구당. 1981. p.458;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大阪. 自家出版. 1962. p.258.
 113) 김정재. 추천사. 신재용. 방약합편해설. 서울. 성보사.

1988. p.3; 이선아, 이시형. 黃度淵의 『方藥合編』에 대한 연구. 한국전통의학지. 2001. 11(1). p.108.
 114) 후대 사상의학 관련 임상 서적 편찬에 깊은 영향을 미친 元持常의 『東醫四象新編』 역시 『방약합편』 편제에 입각해 편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윤보현, 박성식. 東醫四象新編에 대한 研究.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 13(2). p.29).
 115) 池圭植 著. 이종덕 譯. 國譯 荷齋日記(1). 서울. 서울특별시. 2005. p.77; 이정현. 하제일기를 통해 본 구한말 의약생활의 변화. 대한한의학회전학회지 27-4. 2014. p.44.
 116) 余新忠. 清代江南의瘟疫与社会. 北京. 北京师范大学出版社. 2014. p.78, pp.269-272.

이다. 황필수에 의해 수정 편찬 및 간행된 『방약합편』은 출간 직후 의료계에 대단한 선풍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¹¹⁷⁾ 전문 출판업자 현공림(玄公廉) 등에 의해 수차례 반복 간행되며¹¹⁸⁾ 주요 의서로서의 지위를 확보해갔다. 『방약합편』 판본을 수집한 최순화에 따르면 『방약합편』은 1885년 처음 간행된 이래 1945년까지 『중정방약합편(重訂方藥合編)』, 『증맥방약합편(證脈方藥合編)』, 『신정방약합편(新訂方藥合編)』, 『신증맥방약합편(新增證脈方藥合編)』, 『신교중정방약합편(新校重訂方藥合編)』, 『증보변증방약합편(增補辨證方藥合編)』 등으로 이름을 바꿔가며 23차례 정도 간행됐다(부록 2). 조선 말기부터 일제강점기를 통틀어 가장 성공한 상업 의서 출판 사례였던 것이다. 『방약합편』의 이와 같은 인기 배경에는 해당 저술이 지닌 간편성 혹은 편의성 뿐 아니라 의약 시장의 확산과 함께 의학 지식에 대한 갈증을 민중 스스로 해소하고자 했던 열망 등도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것은 『방약합편』 표지나 본문 어디에도 저자 황도연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그림 4, 오른쪽). 『방약합편』의 성공 이면에, 혹시 『동의보감』, 『제중신편』으로 이어지는 조선 역대 관의학이나 당대의 임상 의학 성과를 수집 정리한 『의종손익』의 학술적 권위 뿐 아니라 굳이 이름을 내세우지 않더라도 모두가 알고 있던 어의(御醫) ‘혜암선생(惠庵先生)’의 명성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한발 더 나아가 너무도 잘 알려져 있던 호칭 ‘혜암’으로 인해 실명 황도연(黃度淵)이 황도연(黃道淵), 황지연(黃芝淵)¹¹⁹⁾

등으로 오기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것은 아니었을까.

5. 에필로그

황도연은 『의종손익』 「서문」 중에서 저술할 만한 것들은 옛사람들이 모두 해두었는데, 굳이 자신이 이 책을 저술하는 까닭에 대해 자문하고 있다.¹²⁰⁾ 의료 현장에 있는 임상 의가에게 가장 필요한 지식은 무엇일지 어떻게 그것을 구성할지에 대한 고민이 담긴 질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의서, 『의종손익』이 과거의 이론에 부합하면서도(合乎古), 시류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음을(宜於時) 강조했다.¹²¹⁾ 이를 위해 관찬 의서인 『동의보감』과 『제중신편』 그리고 새롭게 유입된 장개빈의 의학 이론을 중심으로 의학을 재구성하고, 당대 유명 의가들과 자신의 의약 경험을 종합해두고자 했다. 성인이 남긴 의학 이치를 전승하는 것에 치중했던 탓인지, 자신 만의 의학 이론이나 치료 방법을 주창하고 있지 않아, 안타깝게도 황도연의 의학적 특징이 과연 무엇이었는지는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의종손익』 본문이나 저자의 목소리가 담긴 ‘증’ 항목 대부분이 방제로 채워져 있는 점, 『의종손익』을 축약한 『의방할투』나 『방약합편』이 방제 정보와 약물 가감 사례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약물 정보로 채워져 있는 점 등은 그가 방제를 중심으로 임상 의학 지식을 정리하고자 했음을 잘 보여준다. 황도연 스스로도 뛰어난 의사는 신묘한 방제를 지니고 있다(良醫有妙方)는 서술을 남기고 있다.¹²²⁾ 훈련된 의관으로서 관찬 의서를 중심의 의학 흐름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의학 정보를 수집하고 거듭 정리해가는 모습은 『동의보감』, 『제중신편』와 같은 관찬 의서에서도 그대로 확인된다. 이와 같은 신중한 접근 방식이야 말

117) 신동원. 호일자 조선을 습격하다. 서울. 역사비평사. 2004. p.287.

118) 현공림의 서적 출판에 대해서는 방효순의 선행 연구 참조(방효순. 일제강점기 현공림의 출판활동. 근대서지. 2013. 8. pp.594-622). 현공림에 대해 三木榮은 고종 24(1887)년 『방약합편』을 증정한 혜암의 제자로, 자는 洋南, 호는 酉齋라고 기술했지만(三木榮. 朝鮮醫書誌. 大阪. 學術圖書刊行會. 1973. p.152), 현공림은 평생을 전문 출판업자로 활동한 만큼 그가 의서를 증정할 수준의 의학 실력을 지니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현공림에 대한 평가는 최순화의 의견을 옮긴 것임을 밝힌다.

119) 최남선은 『東亞日報』에 연재하고 있던 「朝鮮歷史講話」 중에서 “哲宗朝에 黃芝淵(惠庵)이 ... 醫方活套를 만들고 뒤에 藥性歌, 脈訣其他를 더하여 方藥合編이라 이름하

나...”라며 ‘黃芝淵’이라고 표기했다(최남선. 朝鮮歷史講話 (51). 동아일보. 1930. 3. 15).

120) 黃度淵. 醫宗損益. 金信根 편. 韓國科學技術史資料大系 25권. 서울. 여강출판사. 1988. p.3.

121) 黃度淵. 醫宗損益. 金信根 편. 韓國科學技術史資料大系 25권. 서울. 여강출판사. 1988. p.11.

122) 黃度淵. 醫宗損益. 金信根 편. 韓國科學技術史資料大系 26권. 서울. 여강출판사. 1988. p.104.

로 『방약합편』이라는 질긴 생명력을 지닌 대중 의서를 탄생시킨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며, 이후 이규준, 이제마 등의 의가들이 관의학의 속박에서 벗어난 부양의학이나 사상의학과 같은 자유로운 의학 이론을 제창하는 발판이 되어주었을 것이다.

미키사카에를 비롯한 후대 학자들에 의해 조선 말기 의학이 간편 편의를 추구한 의학으로 평가되는 계기가 됐던 『방약합편』은 사실 황도연의 대표 의서 『의중손익』 중에서 중요 방제를 추려낸 소책자 의서에 불과하다. 따라서 『방약합편』의 임상 의학적 가치는 『의중손익』을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 『방약합편』과 관련하여 오히려 주목해야 할 점은 당대에 이 서적에 대한 높은 대중적 수요가 있었고 활발히 유통되었다는 사실이다. 민간의원이었다던 황도연은 의약동참으로 천거되어 내의원 의관으로 활동하다가 『의중손익』, 『의방촬투』 등을 펴냈고, 세상을 떠나기 직전 주변의 요청에 따라 소책자 의서 『방약합편』을 편찬해냈다. 『방약합편』의 편찬과 보급 과정은 조선 후기, 부쩍 성장한 민간의학이 기존의 관의학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당대 조선 의학의 학술적 흐름은 어떤 경향성을 지니고 있었는지, 그리고 민간에서 유통되던 의학 지식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 사례라 할 수 있다.

황도연과 황도순이 동일 인물일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를 입증하고자 노력했으며 그것을 기반으로 추가 논의를 진행했다. 주변 자료를 통해 두 사람이 동일 인물임을 어느 정도 설명해냈다고 판단되지만, 여전히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하다. 분명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점은 연구자의 능력 부족이자 이 연구의 한계다. 향후 황도연과 황도순의 관계를 분명하게 밝혀줄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조선 후기 의학의 양상이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되기를 소망해본다.

References

1. MG Kang. Edition on Universal Relief. SK Kim ed.. Sourcebook Series of History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Korea vol. 18. Seoul. Yeogang Publishing Co., 1988.
康命吉. 濟衆新編. 金信根 編. 韓國科學技術史資料大系 18권. 서울. 여강출판사. 1988.
2. NI Kim. Records of Figures in Modern and Contemporary Korean Medicine. Seoul. Dulnyouk Publishing Co., 2011.
김남일. 근현대 한의학 인물 실록. 서울. 들녘. 2011.
3. NI Kim. The Intellectuals crazy about Korean Medicine in the Joeson Dynasty. Seoul. Dulnyouk Publishing Co., 2011.
김남일. 한의학에 미친 조선의 지식인들. 서울. 들녘. 2011.
4. DJ Kim. History of Korean Medicine. Seoul. Tamgoodang. 1981.
김두홍. 한국의학사. 서울. 탐구당. 1981.
5. HP Park. Bibliography of Joseon's Medical Practitioners. Paju. Korea Studies Information. 2012.
박훈평. 조선의인지.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2.
6. DW Shin. Cholera attacked the Joeson Country. Seoul. History Criticism. 2004.
신동원. 호열자 조선을 습격하다. 서울. 역사비평사. 2004.
7. DW Shin. The Treasured Mirror of Eastern Medicine and History of Eastern Asian Medicine. Paju. Dulnyouk. 2015.
신동원. 동의보감과 동아시아 의학사. 파주. 들녘. 2015.
8. JH Lee. A History of Eastern Medicine in Korea.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 Korea Univ. ed.. Great Series of Korean Modern Cultural History. Seoul.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 Korea Univ. 1977.
李鍾馨. 韓國東醫學史.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편. 韓國文化史大系. 서울.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77.

9. Author unknown. Document for Medical Practitioner of Acupuncture in the Royal Medical Center. WS Lee ed.. Text book for Sallpox. Seoul. Asia Culture Co. 1996.
저자 미상. 內鍼醫先生案. 이우성 편. 瘡疹集外一種. 서울. 亞細亞文化社. 1996.
10. Author unknown. Document for Medical Practitioner selected as an officer to discuss medicine with other medical officers in the Royal Medical Center. WS Lee ed.. Text book for Sallpox. Seoul. Asia Culture Co. 1996.
저자 미상. 議藥同參先生案. 이우성 편. 瘡疹集外一種. 서울. 亞細亞文化社. 1996.
11. Dept. of Sanitation of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Joseon ed.. Bibliograph of Joseon Dynasty Books. Dept. of Sanitation of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Joseon. 1915.
朝鮮總督府 編. 朝鮮圖書解題. 朝鮮總督府. 1915.
12. Dept. of Sanitation of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Joseon ed.. Bibliograph of Joseon Dynasty Books. Dept. of Sanitation of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Joseon. 1919.
朝鮮總督府 編. 朝鮮圖書解題. 朝鮮總督府. 1919.
13. Dept. of Sanitation of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Joseon ed.. Bibliograph of Joseon Dynasty Books. Gyeongseong. Joseon Communications Company. 1932.
朝鮮總督府 編. 朝鮮圖書解題. 京城. 朝鮮通信社. 1932.
14. KS Ji. JD Lee trans.. Translation of Hajae's Diary. Seoul. Seoul Metropolitan Gov.. 2005.
池圭植 저. 이종덕 역. 國譯 荷齋日記(1). 서울. 서울특별시. 2005.
15. Committe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Translation and Annotation. Translation of Taejonhoetong. Seoul. Korea Univ. Press. 1960.
한국고전국역위원회 역주. 國譯大典會通.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1960.
16. DY Hwang. Compilation of Formulas and Medicinals. SK Kim ed.. Sourcebook Series of History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Korea vol. 27. Seoul. Yeogang Publishing Co.. 1988.
黃度淵. 方藥合編. 金信根 편. 韓國科學技術史資料大系 27권. 서울. 여강출판사. 1988.
17. DY Hwang. Flexible Trap of Medical Formulas. SK Kim ed.. Sourcebook Series of History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Korea vol. 27. Seoul. Yeogang Publishing Co.. 1988.
黃度淵. 醫方活套. 金信根 편. 韓國科學技術史資料大系 27권. 서울. 여강출판사. 1988.
18. DY Hwang. Gains and Losses of Medical Orthodoxy. SK Kim ed.. Sourcebook Series of History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Korea vol. 25-26.. Seoul. Yeogang Publishing Co.. 1988.
黃度淵. 醫宗損益. 金信根 편. 韓國科學技術史資料大系 25-26권. 서울. 여강출판사. 1988.
19. DD Jia. Brief History of Chinese Medicine. Shanxi Institute of Chinese Medicine. 1978.
賈得道. 中國醫學史略. 山西省中醫研究所. 1978.
20. AC Guo ed.. The Inner Canon of the Yellow Emperor: Basic Questions, with Collation, Commentary, and Vernacular Translation. Tianjin. Tianjin Science and Technolgy Publishing Co., 1981.

- 郭霽春 主编. 黄帝内经素问校注语译. 天津. 天津科学技术出版社. 1981.
21. YQ Liao. *Medicine & Interpretation*. Taipei. Dongda Books. Co. Ltd. 2003.
廖育群. 醫者意也. 台北. 東大圖書股份有限公司. 2003.
22. YQ Liao, F Fu, JS Zheng. *History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China, Volume on Medicine*. Beijing. China Science Publishing & Media Ltd.. 1998.
廖育群, 傅芳, 郑金生. 中国科学技术史 医学卷. 北京. 科学出版社. 1998.
23. XZ Fan. *Brief History of Chinese Medicine*. Beijing. Beijing Publishing House. 2016.
范行准. 中国医学史略. 北京. 北京出版社. 2016.
24. G Xie. *On the History of Medicine in China*. Fuzhou. Fujian Science & Technology Publishing House. 2003.
谢观. 中国医学源流论. 福州. 福建科学技术出版社. 2003.
25. XZ Yu. *Beijing, Epidemics and Society at Jiangnan Area in the Qing dynasty*. Beijing Normal Univ. Publishing Group. 2014.
余新忠. 清代江南的瘟疫与社会. 北京. 北京师范大学出版社. 2014.
26. FZ Ye. *History of Cold Damage Disorders Studies*. Wuchang. Huazhong Normal Univ. Press. 1995.
叶发正. 伤寒学术史. 武昌. 华中师范大学出版社. 1995.
27. XH Wang ed.. *Basic Theory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vol.1*.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Co.. 2001.
王新华 主编. 中医药高级丛书 中医基础理论上. 北京. 人民卫生出版社. 2001.
28. JB Zhang. *Complete Works of Jingyue*. Lee ZY ed.. *Zhang Jingyue's Medical Collection*. Beijing. China Pres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1999.
张介宾. 景岳全书. 李志庸 主编. 张景岳医学全书. 北京. 中国中医药出版社. 1999.
29. ZB Zhang. *Historical Table of the Transmission Epidemics in Ancient China*. Fuzhou. Fujian Science & Technology Publishing House. 2007.
张志斌. 中国古代疫病流行年表. 福州. 福建科学技术出版社. 2007.
30. SQ Peng ed.. *Warm Pathogen Diseases Studies*.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co.. 2000.
彭胜权 主编. 中医药高级丛书 温病学. 北京. 人民卫生出版社. 2000.
31. S Miki. *History of Korean Medicine and of Diseases in Korea*. Osaka. Miki Sakae. 1962.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大阪. 自家出版. 1962.
32. S Miki. *Bibliography of Joseon Medical Books*. Osaka. Gakujutsu Tosho Kankokai. 1973.
三木榮. 朝鮮醫書誌. 大阪. 學術圖書刊行會. 1973.
33. KS Maema. *Bibliography of Ancient Joseon Books*. Tokyo. The Oriental Library. 1994.
前間恭作. 古鮮冊譜 1. 東京. 東洋文庫. 1944.
34. SS Kim. *Re-evaluation of the Medical Practice and the Medicine in the Later Half of the Chosun Dynasty*. Korean J. of Medical History. 2009. 18(1).
김성수. 朝鮮後期 私의 醫療의 성장과 醫業에 대한 인식 전환. 의사학. 2009. 18(1).
35. YS Kim. *The Actual Conditions of Official*

- Doctors and their Advancement to Local Mandarins (地方官) in Chosun Dynasty. The Dongbang Hakchi. 1999. 104.
김양수. 조선시대 醫員實態와 지방관진출. 東方學志. 1999. 104.
36. J Kim, WS Hong. Real situation of Korean Medicine for the time of enlightenment and Hwang Doyeon's Medical thought. J. of Korean Medicine. 1980. 16(1).
김적, 홍원식. 開化期 韓國漢醫學의 實情과 黃道淵의 醫學思想. 大韓漢醫學會誌. 1980. 16(1).
37. JS Kim, SI Hwang. New Trends of Medicine Manifested at Naeuiwon in the Late Chosun Period. Korean J. of Medical History. 2007. 16(2).
김정선, 황상익. 조선 후기 내의원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의학 경향. 의사학. 2007. 16(2).
38. Kim JJ. Recommendation. Shin JY. Explanation for the Compilation of Formulas and Medicinals. Seoul. Seongbosa. 1988.
김정제. 추천사. 신재용. 방약합편해설. 서울. 성보사. 1988.
39. Kim JC. Hwang Pilsu and his compilations. J. of the Institute of Bibliography. 1994. 10.
金鍾天. 黃泌秀와 그의 편간서들. 서지학연구. 1994. 10.
40. J Kim. Selection of Official Doctors in Chosun Dynasty. The Dongbang Hakchi. 1999. 104.
김진. 조선시대 醫官選拔. 東方學志. 1999. 104.
41. HT Kim, CY Yoon. A Study on Bang-Yak-Hap-Pyun. J.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 History. 1991. 5.
김형태, 윤창열. 方藥合編에 대한 연구.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91. 5.
42. DH Noh. Sinchon Hwang Pil Su and the Shift of His Intellectual Perspective. Korean Studies. 2015. 37.
노대환. 愼村 黃泌秀(1842-1914)의 사상적 행보. 한국학연구. 2015. 37.
43. SJ Park. Studies on the Characteristics of Eastern Asian Premodern Society and Dongeuibogam. Ph. D. thesis of Kyunghee Univ.. 2005.
박석준. 동아시아 전근대 의학과 동의보감의 역사적 성격.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44. HS Bang. Hyeon Gongryeom's Publication Activity during Japanese Colonial Era. The Modern bibliography Review. 2013. 8.
방효순. 일제강점기 현공림의 출판활동. 근대서지. 2013. 8.
45. GG Shin. Lecture of Pharmacology (3rd). Oriental Medicine. 1955. 1(3).
申估求. 藥物學講義 (第三講). 東洋醫藥. 1955. 1(3).
46. DW Shin. Three Great Phases in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Medical System of the Joseon Dynasty. The J. of Korean History. 2006. 135.
신동원. 조선시대 지방의료의 성장: 관 주도에서 사족 주도로. 사족 주도에서 시장 주도로. 한국사연구. 2006. 135.
47. DW Shin. The Change of Medical Life in the Late Joseon Dynasty. History Criticism. 2006. 75.
신동원. 조선 후기 의약생활의 변화: 선물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역사비평. 2006. 75.
48. BG An. Preface. Kim HJ. Golden Prescriptions. Gyeongseong. Jo Jeonggu. 1976.

- 안병국. 序文. 金弘濟. 一金方. 京城. 趙鼎久方. 1976.
49. IS Yeo. The Gaze of the Others: How the Western Medical Missionaries viewed the Traditional Korean medicine. Korean J. of Medical History. 2006. 15(1).
여인석. 한말과 일제시기 선교의사들의 전통 의학 인식과 연구. 의사학. 2006. 15(1).
50. BG Oh, KN Park, WJ Maeng. A Xylographical Study on the Hwaltuchimsun (活套鍼線: Manual for Usual Adaptability) in Bangyakhappyeon (方藥合編: Compilation of prescriptions and medicines). The J. of Korean Medical History. 2007. 20(2).
오병진, 박경남, 맹웅재. 《方藥合編》中〈活套鍼線〉에 관한 板本學的 考察. 한국의사학회지. 2007. 20(2).
51. CK Oh, CY Yoon. A Study on the Nature of Medicinals in Rhymes of Medical Books in Chosun Dynasty. The J.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11. 24(3).
오재근, 윤창열. 조선 의서 중의 藥性歌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1. 24(3).
52. CK Oh, YJ Kim. The Introduction of Compendium of Materia Medica (本草綱目) and Praxis in the Late Joseon Dynasty. Korean J. of Medical History. 2011. 20(1).
오재근, 김용진. 조선 후기 『본초강목』의 전래와 그 활용. 의사학. 2011. 20(1).
53. CK Oh. Birth and Succession of a Current of Learning in Korean Medicine. Korean J. of Medical History. 2014. 23(1).
오재근. 부양학과. 한국 전통 의학 학술 유파의 탄생과 전승. 의사학. 2014. 23(1).
54. CK Oh. A Medical Practitioner, Hwang Doyeon, and His Other Name, Hwang Dosun. The Sourcebook of 7th Academic Seminar of History of Science between Korea and Japan. 2017.
오재근. 조선 말기 의가 황도연(黃度淵)과 그의 또 다른 이름 황도순(黃道淳). 제7회 한일과학사세미나자료집. 2017.
55. BH Youn, SS Park. The Study on the DongyiSasangShinpyun. J.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001. 13(2).
윤보현, 박성식. 東醫四象新編에 대한 研究.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 13(2).
56. KK Yi. A Study of Uiyakdongcham (議藥同參) in the Late of Chosun Dynasty. The J. of Chosun Dynasty History. 2001. 19.
이규근. 조선 후기 議藥同參 연구. 朝鮮時代史學報. 2001. 19.
57. SA Lee, SH Lee. A Study of Pangyak Happyon (方藥合編). The J.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2001. 11(1).
이선아, 이시형. 黃度淵의 『方藥合編』에 대한 연구. 한국전통의학지. 2001. 11(1).
58. JH. Lee. A Look into the Changes in Medical Activities during the Late Chosun Dynasty Period through "Hajae's Diary". The J.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14. 27(4).
이정현. 하재일기를 통해 본 구한말 의약생활의 변화.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4. 27(4).
59. JC Lee. A Study of Hwang Doyeon's Medical Thought through Uijongshonik. Ph.D. thesis of Kyunghee Univ.. 2017.
이진철. 『醫宗損益』을 통해본 황도연의 의학사상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60. T Jeong. Oriental Medicine seen by a Medical student. Oriental Medicine. 1947.

- 1(1).
鄭澤. 醫學徒가 본 東洋醫學. 東洋醫學. 1947. 1(1).
61. WJ Chough, SA Lee. Hwang Doyeon's Medical Coping with Cholera in the 19C of the Joseon. Korean J. of Oriental Medicine. 2007. 13(1).
조원준, 이선아. 19세기 조선에서 유행한 콜레라에 대한 黃度淵의 의학적 대처.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07. 13(1).
62. CY Ji. The Medical Idea of Kang Myung Kil through the Consideration of Che Jung Sin-pyeon. J. of KyungHee Oriental Medicine College. 1998. 21(1).
지창영. 『濟衆新編』을 통해 살펴본 강명길의 의학사상. 경희한의대논문집. 1998. 21(1).
63. CY Ji. Study Comparing the Treasure Mirror of Eastern Medicines, and Je Joong Shin Pyeon. The J. of Korean Medical History. 2008. 21(2).
지창영. 제중신편과 동의보감의 비교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08. 21(2).
64. KT Ha, JK Kim, DY Choi. A Study on the Influence of Jingyuequanshu to Korean Medicine in the Late Chosun Dynasty. J. of Korean Medicine. 1999. 20(2).
하기태, 김준기, 최달영. 『景岳全書』가 朝鮮後期 韓國醫學에 미친 影響에 대한 研究. 대한한의학회지. 1999. 20(2).
65. SY Hong. Clinical Discussion in the Royal Medical Center. The J. of Korean Medical History. 2010. 23(1).
홍세영. 왕실의 議藥. 한국의사학회지. 2010. 23(1).
66. YG Hwang. Questions of Hwang Doyeon, Author of Flexible trap of Medical Formulas. J. of Gyeongnam Province Korean Medicine. 2008. 35.
- 향연규. 《醫方活套》의 黃度淵선생에 대한 疑問들. 慶南韓醫會誌. 2008. 35.
67. ZX Sheng ed.. A study about Wang Mengying's Medical Thought. Wang Mengying's Medical Collection. Beijing. China Pres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1999.
盛增秀 主编. 王孟英医学学术思想研究. 王孟英医学全书. 北京: 中国中医药出版社. 1999.
68. CG Shin. How to Read Mi Sakae. The Sourcebook of 7th Academic Seminar of History of Science between Korea and Japan. 2017.
慎瘡健. 医学史家·三木栄 (1903-1992) の 讀み方. 제7회 한일과학사세미나자료집. 2017.
69. Bowman. N. H. The History of Korean Medicine. Transactions of the Korean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1915. VI(I).
70. CK Oh. The Cold Damage Medicine in 17-18th Century Korea: Comparison through the Medical Records of China, Japan, and Korea. HISTORIA SCIENTIARUM. 2014. 24(1).
71. NS Choi. Lectures about History of Joseon Dynasty (51). The Dong-a Ilbo. 1930. 3. 15.
최남선. 朝鮮歷史講話 (51). 동아일보. 1930. 3. 15.
72. SW An. Collecting the Medical Experience Handed down among People. Strolling Old Medical Books 729. The Minjok Medicine News. 2016. 5. 20.
안상우. 民間에 흘어진 醫藥經驗 모아모아. 고의서산책 729. 민족의학신문. 2016. 5. 20.
73.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Joseon Dynasty [cited 20 Jan 2017]:

- Available from: URL:
<http://sjw.history.go.kr/>.
승정원일기 [검색날짜 2017년 1월 20일]:
Available from: URL:
<http://sjw.history.go.kr/>.
74.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cited 20 Jan 2017]: Available from: URL:
<http://sillok.history.go.kr/main/>.
조선왕조실록 [검색날짜 2017년 1월 20일]:
Available from: URL: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75. Knowledge of Oriental Medicine Web Service. [cited 20 Jan 2017]: Available from: URL: <http://jisik.kiom.re.kr/>.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고전명저총서 [검색날짜 2017년 1월 20일]: Available from: URL: <http://jisik.kiom.re.kr/>.
76. Jangseogak Royal Archive [cited 20 Jan 2017]: Available from: URL: <http://yoksa.aks.ac.kr>.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검색날짜 2017년 1월 20일]: Available from: URL: <http://yoksa.aks.ac.kr>.
77. DB of Korean classics [cited 20 Jan 2017]: Available from: URL: <http://db.itkc.or.kr>.
한국고전종합DB [검색날짜 2017년 1월 20일]: Available from: URL: <http://db.itkc.or.kr>.

Supplement 1. Classification of addition(增) in the *Gains and Losses of Medical Orthodoxy*. 『의중손익』 중의 증(增) 항목 분류

문	조목	분류	문	조목	분류	문	조목	분류
總論	毒藥爲害	藥	脇	沈香降氣湯	方	咳嗽	保金湯	方
	十要	理	皮	陰症發斑	法/方	黃疸	陰黃	法/方
	薑三棗二	藥		俗方	方		黃疸通治	藥
身形	論身形	法	脈	怪脈	法	痲瘡	茵朮湯	藥
	服松葉法	藥	手	肩臂症治	法	癩疫	聖散子	方
	服人乳法	藥		舒經湯	方	諸瘡	湯火瘡	方
神	歸脾湯	方	毛髮	鬚髮榮枯黃落	案	解毒	附子天雄川烏 草烏毒	藥/案
痰飲	六君子湯	方	前陰	當歸四逆湯	方	雜方	取竹瀝法	藥
	芎夏湯	方		補陽丹	方		求嗣	案
五臟	潤肝飲	方	風	星香正氣散	方	婦人	孕婦轉脬	法/案
	六味地黃丸	藥		不換金正氣散	方		潤金湯	方
六腑	平胃散	方	寒	人參敗毒散	理	吉鷄膏	方	
小便	八淋	案		桔橘飲	方	子瘡	-	
大便	君令湯	方		六味地黃元	方	感寒	-	
眼	蔓菁子丸	案	火	牛鹿飲	方	小兒	紫霜丸	法
	一方	方	內傷	症治	理/法		水楊湯	法
胸	建理湯	方/案		食傷消導	方	孕婦麻疹	方	
	參圓飲	方	霍亂	症治	法/方			
腹	黃連湯	方		回生散	方			

* 내용 분류는 한의학 관련 지식을 분류하는 틀 중의 하나인 이법방약(理法方藥)에 의거했으며, 의학 이론은 리(理), 변증·진단·치법은 법(法), 방제는 방(方), 본초는 약(藥) 그리고 의안은 안(案)으로 구분 기재했다.

Supplement 2. Publication of *the Flexible trap of Medical Formulas and the Compilation of Formulas and Medicinals* (1869-1948). 현재까지 파악된 『의방활투』 및 『방약합편』 발간 현황(1869-1948)

번호	서명	편찬자 및 발행인	발행처 및 간기(刊記)	간행 년도
1	『醫方活套』	惠庵	贊化堂	1869
2	『方藥合編』	惠庵	治洞新刊	1885
3	『重訂方藥合編』	漢隱	美洞新刊	1885
4	『證脈方藥合編』	西齊	治洞新刊	1887
5	『證脈方藥合編』	西齊	里洞新刊	1887-1909
6	『證脈方藥合編』	西齊	院山新刊	1887-?
7	『新訂方藥合編』	崔承學	光東書局	1908
8	『證脈方藥合編』	卓鐘佶·梁完得	文明書館	1911
9	『證脈方藥合編』	卓鐘佶·梁元仲	西溪書舖	1911
10	『證脈方藥合編』	卓鐘佶·梁完得	西溪書舖	1911
11	『新訂方藥合編』	李鐘楨	光東書局	1913
12	『新校重訂方藥合編』	高裕相	滙東書館	1914
13	『證脈方藥合編』	梁珍泰	多佳書舖	1916
14	『證脈方藥合編』	高裕相	滙東書館	1918
15	『原本證脈方藥合編』	盧益亨	博文書館	1923
16	『增訂方藥合編』	玄公廉	大昌書院	1926
17	『增補辨證方藥合編』	李常和	普惠藥房	1927
18	『增訂方藥合編』	玄公廉	新舊書林	1929
19	『訂正增補新校方藥合編』	姜義永	振興書館	1933
20	『增訂方藥合編』	朝鮮總督府	朝鮮書籍印刷株式會社	1937
21	『臨床辨證方藥合編』	李宗壽	盛文堂書店	1938
22	『訂正增補新校方藥合編』	申泰三	世昌書館	1938
23	『新訂大方藥合編』	鄭敬德	文尙堂書店	1939
24	『新校正方藥合編』	金東縉	德興書林	1940
25	『增補辨證方藥合編』	李常和	永昌書館	1941
26	『新校方藥合編』	金東縉	德興書林	1948

* 부록 3의 도표와 하단의 설명은 보광한의원 최순화 원장에 의해 작성됐음을 밝힌다.

** 개별 간행본의 발간 현황 조사는 초판본만을 기준으로 삼았다.

*** 일반적으로 『방약합편』의 편찬자는 황필수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방약합편원인」 이외에 황필수가 『방약합편』의 저술 및 발간에 관여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에 제외했다.

**** 『방약합편』 초간본과 漢隱의 『증정방약합편』, 西齊의 『증맥방약합편』, 崔承學의 『신정방약합편』, 李常和의 『증보변증방약합편』은 분명한 차이를 보여 나름 편찬 기여도가 인정되나, 나머지 인물들이 『방약합편』 내용 추가에 어떤 기여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Supplement 3. Comparison of Guipitang (歸脾湯) with *the Treasured Mirror of Eastern Medicine, Gains and Losses of Medical Orthodoxy, Flexible trap of Medical Formulas and the Compilation of Formulas and Medicinals*. 『동의보감』, 『의종손익』, 『의방활투』, 『방약합편』 중 귀비탕 항목 비교

「동의보감」	분류	「의종손익」	「의방활투」	「방약합편」
歸脾湯		歸脾湯		上統 六十六
治憂思勞傷心脾 健忘怔忡		[入門] 治憂思勞傷心脾 健忘怔忡	寶 歸脾湯	寶 歸脾湯
當歸 龍眼肉 酸棗仁炒		當歸 龍眼肉 酸棗仁炒	治憂思勞傷心脾 健忘怔忡	治憂思勞傷心脾 健忘怔忡
遠志製 人參 黃芪 白朮 茯神 各一錢 木香五分 甘草 三分		遠志製 人參 黃芪 白朮 茯神 各一錢 木香五分 甘草 三分 薑五片 棗二枚 寶鑑	○ 又治 每觸遺精	○ 又治 每觸遺精
右剉 作一貼 薑五片 棗二枚 水煎服 入門		○ [增] 老人夜多不眠 倍參 加熟地黃	當歸 龍眼肉 酸棗仁炒 遠志 人參 黃芪 白朮 白茯神各一錢 木香五分 甘草三分 姜五片 棗二枚	當歸 龍眼肉 酸棗仁炒 遠志 人參 黃芪 白朮 白茯神各一錢 木香五分 甘草三分 薑五片 棗二枚
	神	虛冷 加肉桂 乾薑 痰盛 加橘皮 貝母 因虛火上升 吐血不止 倍參 加便香附 川芎 乾薑炒黑 崩漏不止 加山藥炒 地榆 荊芥 吳茱萸 自汗不止 加防風	氣不升降 加便香附 ○虛火吐血 加熟地黃 五七錢 乾薑炒黑一二錢 ○崩帶日久 倍參 加地榆荊防升麻之類 ○不眠 加熟地五七錢	[活套] 氣不升降 加便香附 ○虛火吐血 加熟地黃 五七錢 乾薑炒黑一二錢 ○崩帶日久 倍參 加地榆荊防升麻之類 不眠加 熟地五七錢
	精	精 症治 ○思慮勞倦 每觸即遺 壽脾煎 _{血門} 歸脾湯 _{神門} 免絲煎之類 ... 景岳		